

제2172호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사람 중심 디지털 은행' 강조한 허인 행장 9



장세욱 부회장의 인재상 '멀티 스페셜리스트' 12

코스피(2일) 2122.02 (-7.72P) 코스닥 696.25 (+0.25P)
환율(달러당 원화) 1166.00 (+7.20원) 금리(국고채 3년물) 1.463% (-0.016%p)

“공장 돌릴수록 손해” 회생 여부도 불투명

혹독한 '군산의夏'

② 비명지를 힘도 없는 협력사

9년 전 유망기업으로 주목받던 현대중공업 1차 협력사가 군산조선소 폐쇄 2년 만에 '법정관리' 기업으로 전락했다. 군산 국가산업단지 내 협력사들은 대출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이투데이가 지난달 25일 찾은 3만 평(9만9000㎡) 규모의 JY중공업에는 직원 3명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3개 공장 동은 모두 멈췄고, 일용직 노동자 1명만이 잔업을 마무리 중이었다. JY중공업은 현대중공업의 1차 협력사로 선박 조립용 블록제작 업체다. JY중공업은 2010년 전라

지역 선도기업 뽑혔던 'JY重' 조선소 폐쇄와 함께 법정관리 채권단 "회생 졸업 장담 못해" 중소업체 업종 전환 추진하지만 주요 협력사는 그나마도 불가능

북도 선도기업으로 선정될 만큼 우수기업으로 꼽혔다. 하지만 2017년 7월 군산조선소 폐쇄와 함께 순식간에 법정관리 기업으로 내려앉았다.

JY중공업은 2010년 군산조선소를 따라 목표에 있던 본사를 군산으로 옮겼다. 현대중공업과 최단거리인 8차선 메인 도로 가장자리, 군산조선소 블록 납품에 최적화

된 공장 부지를 배당받았다. 한 달에 3000톤의 물량을 납품할 수 있는 공장 설비를 갖췄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가동이 중단됐다. 협력업체를 포함한 직원 650여 명은 뿔뿔이 흩어졌다. JY중공업 관계자는 “해외 발전소 등에 납품할 철구조물 작업을 하며 일감을 이어가고 있지만 단가가 맞지 않아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라며 “현대중공업이 일부라도 가동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대중공업 폐쇄 6개월 전인 2016년 말 이미 일감은 떨어진 상태였다. JY중공업은 그해 12월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017년 2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거쳐 지난해 7월 회생신청 계획안이 인가돼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럼에도 회생 여부는 불투명하다. 채권단 관계자는 “회생신청(안)에 따라 원리금 상환 유예 등 강제 집행을 방지하고 있지만

군산국가산업단 파산 신청 기업

| 2017년 11월 | 2018년 | | |
|-----------|-------|------|--------|
| | 1월 | 3월 | 5월 |
| 케이엔 | 다원 | 진우정공 | 케이비중공업 |

※출처: 전주지방법원

JY중공업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일지

| | |
|-----------|----------------|
| 2016년 12월 | 회생절차 신청 접수 |
| 2017년 2월 | 회생절차 개시 결정 |
| 2017년 7월 |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
| 2018년 7월 | 회생절차 계획(안) 인가 |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회생절차 졸업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형 협력사들은 “목포조선소의 10분의 1만이라도 가동되면 산단지점은 팽팽 돌아간다”며 “선박 블록 물량을 군산에 우선 배정

하라”고 끊임없이 주장한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울산·포항·목포조선소 노동자들은 “우리도 죽겠다”며 일감 하나라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재우 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사무국장은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우선이라는 기약 없는 답변만 되풀이한다”고 말했다.

중소조선사는 새만금·군산 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업종 전환을 추진 중이지만 JY중공업 등 주요 협력사들은 대형 선박 블록 제작에 최적화된 상황에서 업종 전환도 불가능하다. 지난해 산업단지 내 파산 신청한 기업만 3곳, 얼마 남지 않은 공장들 사이에서 ‘열 공장이 경매에 나왔다’라는 흥흥한 소식만이 나돌고 있다.

군산=김버리 기자 kimstar1215@ 김보름 기자 fullmoon@



'포뮬러 E 챔피언십' 내년 5월 서울서 열린다

이희범 Seoul E-Prix 2020 대회운영위원장이 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ABB FIA 포뮬러 E 챔피언십 Seoul E-Prix 2020 개최 기념' 기자회견에서 대회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국내 처음 공개된 경주용 전기차 'Gen2'는 45분가량의 배터리 성능을 지녔으며, 최고속도 280km/h(174mph), 가속도는 약 2.8초에 0-100km/h (0-62mph)에 이른다. 세계적 전기차 레이싱 대회인 'ABB FIA 포뮬러 E 챔피언십'은 내년 5월 3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뉴스시

만도 창사이래 첫 대규모 구조조정

임원 20% 감원·희망퇴직...정몽원 회장 "비상경영체제 돌입"

국내 대표적 자동차부품 업체인 만도가 창사 이후 처음으로 임원 20% 이상 감원과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만도는 2일 “녹록지 않은 자동차 시장 상황을 타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상 연말에 시행하던 희망퇴직을 5개월 앞당겨 7월에 공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만도의 정몽원 공동대표이사과 정재영 전무는 지난달 24일과 26일 각각 비상경영체제 돌입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 방침을 밝힌 담화문을 임직원들에게 이메일로 통보한 바 있다.

만도는 이달 말로 예정된 희망퇴직 실시

에 앞서 창사 이후 처음으로 임원 규모를 20% 대폭 감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동대표이사인 송범석 부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1일자로 사퇴했다.

정몽원 회장은 담화문에서 “올해 사업계획 달성 여부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역성장하지 않으리라는 장담을 하기 어려운 엄중한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대규모 생산 물량 감소로 인해 회사의 현금창출 능력은 크게 저하되고 있다”며 “완성차 업종의 급격한 악화로 비롯되는 경영위기 때문에 투자금융 업계에서는 신용등급 하향을 고려하는 등 만도의 미래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까지 제

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은 “회사의 지속적 생존을 위해 비상한 경영 효율화 조치들을 결행할 예정”이라며 “필요하지 않은 자산들의 매각, 글로벌 라인들의 최적화 조치, 재무적 구조조정 등을 과감하게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만도의 중심 사업부인 글로벌 브레이크 사업부는 수익성이 급속도로 악화해 만도의 사업 기반을 흔들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자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정 회장은 “인력적 효율화 조치까지도 피하지 않기로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직원들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준형 기자 junior@

“5개 유망 신산업 5.6만명 더 필요”

산업부, 인력 부족률 평균 3.7% 인력양성 방안 적극 추진 계획

차세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5대 유망 신산업의 인력 부족률이 평균 3.7%에 달해 관련 산업의 인력 양성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분야는 2027년까지 5만6000명의 추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첨단 신소재 등의 산업기술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17년 기준 5개 신산업 산업기술인력은 총 10만9000명이며, 부족 인력은 4183명(평균 부족률 3.7%)으로 나타났다. 2027년에는 총 16만5000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분야별로 보면 차세대 반도체의 2017년

<2027년>

산업기술인력 수는 2만7297명이며 부족 인원은 1146명으로 파악됐다. 2027년엔 4만3679명(연평균 4.8% 증가)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차세대반도체는 기존 반도체를 크게 뛰어넘어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능을 포함하거나 소모전력을 크게 개선한 반도체를 말한다.

해당 분야에서는 전기·전자공학, 기계·금속공학 전공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것으로 조사됐다. 유망 직무는 초고집적·이머징 메모리 개발 메모리 반도체 연구직, 반도체 회로 설계 시스템 반도체 연구직으로 파악됐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의 현재 인원은 1만3759명으로 부족 인원은 834명이며, 부족률은 5.5%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인력 양성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탄력근로 단위기간 1년으로 연장을”

한경연, 인가 연장 근로대상 확대 등 보완입법 주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장과 인가 연장 근로 대상 확대 등과 같은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일 탄력근로시간제 최대 단위 기간을 1년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정산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하고 인가 연장 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탄력근로시간제는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에 다른 날 단축해서 일정 기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기존 근로시간(40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현재 단위 기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경우 2주,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할 땐 3개월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전자·패션 등은 신제품 기획부터 최종 양산까지 최소 6개월 집중근무가 필요한데 현재 탄력근로시간 단위 기간이 짧다 보니 기업들이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해외건설 업계도 동남아 건설 현장의 집중호우(3~5개월) 등을 피해 특정 기간에 집중근무가 불가피한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짧아서 공기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바이오제약 업계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 임상시험 단계에 6개월 이상 집중근로가 필요하다. 호텔 업계는 연말연시 약 4개월간 행사가 집중될 때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무량을 예측할 수 없는 IT나 게임 산업 특성상 선택근로시간제도를 활용해야 하는 기업도 짧은 정산 기간 때문에 애로를 겪는다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출시 100일 만에 1억 병... 신상들의 '유쾌한 반란'

하이트진로 맥주 '테라' 1초당 12병, 총 1억139만 병 팔려
롯데칠성음료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9개월 만에 1600만 병
블랙보리·굽네피자 등 올해 신상품 베스트셀러 대거 쏟아져

(출시 101일) 기준 누적판매 334만 상자 (330ml 기준), 1억139만 병 판매를 달성했다. 이는 1초당 11.6병이 판매된 셈으로, 국내 성인(20세 이상, 4204만 명 기준) 1인당 2.4병씩 마신 양이다.

테라 출시로 인한 하이트진로 기존 맥주 브랜드의 잠식 현상도 없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테라와 함께 하이트, 맥스 등 기존 브랜드가 시너지를 내며 올해 6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약 5% 판매량이 증가했다. 하이트진로는 테라가 연간 판매 목표인 1600만 상자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초코파이 하나로 세계인을 사로잡은 오리온은 '중고 신상' 덕을 톡톡히 봤다. 오리온의 '태양의 맛 썬' (이하 썬)과 '치

킨팝'은 단종됐다 재출시된 제품이지만 시장의 반응은 뜨겁다. 지난해 4월 소비자들의 요청에 의해 재출시된 썬은 재출시 1년여 만인 지난달 누적판매량 3000만 봉을 돌파하며 1초에 1봉지 판매 기록을 세웠다. 오리온 '치킨팝'은 2월 말 재출시된 이후 7주 만에 누적판매량 300만 개를 넘어섰다. 오리온이 지난해 새롭게 선보인 마켓오 네이처 '오!그레놀라', '오!그레놀라바' 역시 출시 9개월 만에 누적판매량 1000만 개를 달성했다.

이마트는 이너웨어로 신상 반란을 주도하고 있다. 이너웨어의 경우 브랜드 충성도가 높아 신생 브랜드가 성공하기 쉽지 않은 영역이다. 이마트의 'The 편안한 데이즈' 언더웨어는 출시 3년여 만에 누적판매량(2016~2019년 3월)이 130만 장을 기록하며 100억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하이트진로음료가 선보인 국내 최초 검정보리 차음료 '블랙보리'는 론칭 15개월 만에 5000만 병 판매 기록을 썼다. 국민 1인당 1병꼴로 소비한 셈이다. 블

랙보리는 출시 반 년 만에 누적판매 2000만 병을 달성하며 선두 브랜드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가 가용비(가격대비 용량) 트렌드를 반영해 선보인 500ml 대용량 RTD커피인 '칸타타 콘트라베이스'는 출시 9개월 만에 1600만 병을 팔아치웠다. 누적 매출 190억 원에 이른다. 이는 롯데칠성음료에서 출시된 최근 1년간 10여 개의 신제품 중 가장 뛰어난 성과다.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이 인기 치킨 메뉴를 피자로 재해석한 굽네피자 3종 역시 출시 51일 만에 누적 판매량 20만 판을 기록했다. 굽네피자는 그릴드 비프 갈비전왕 피자, 스위트 포테이토 허니멜로 피자, 바베큐치킨 볼케이노 피자 등 3종을 선보인 바 있다.

4월 출시한 스타벅스 돌체 콜드 브루도 2개월 만에 300만 잔 판매량을 기록했으며,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에어프라이어 누적 판매량이 32만 대를 넘어서는 등 유쾌한 반란을 주도하고 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내달 7일 美 뉴욕서 '삼성 갤럭시 언팩'

'갤노트10' 카메라 전면 중앙에... 펜 기능 강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 공개 행사가 다음 달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다.

삼성전자는 2일 '삼성 갤럭시 언팩 2019 초대장(Samsung Galaxy UNPACKED 2019 Invitation·사진)'을 글로벌 미디어와 파트너에게 보냈다. 행사는 다음 달 7일 오후 4시에 열리며, 장소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미국 뉴욕 브루클린 바클레이스 센터다. 공개 행사는 삼성전자 뉴스룸과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한국시각으로는 8일 오전 5시다.

공개된 초대장에는 갤럭시노트 시리즈의 핵심인 펜과, 카메라를 정중앙에 배치했다. 전작에서 펜의 기능을 강화했는데, 이번에 더 다양한 기능이 탑재된 것으로 보인다. 카메라 기능 역시 업그레이드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외신 등을 종합하면 갤럭시노트10은 베젤(테두리)을 최소화하고 화면 상단 가운데 카메라 구멍을 남긴 '인피니티-O' 디자인에 사운드 내장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갤럭시S10 카메라

라 홀이 우측 상단에 위치한 것과 달리 갤럭시노트10 카메라 홀은 전면 중앙에 배치돼 디자인이 달라진다.

6.4인치, 6.8인치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되며, 상위 모델에 기존에 '플러스' 명칭이 붙을 것으로 알려졌다. 카메라는 일반 모델은 후면 트리플 카메라를, 플러스 모델은 후면 쿼드 카메라를 장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전자는 갤럭시S10까지 존재했던 이어폰 단자를 없앤 것으로 관측된다. 해외 사이트를 통해 유출된 갤럭시노



경박단소(輕薄短小)로 바뀌는 추세다. 배터리 용량을 늘리거나 신규 부품을 장착, 성능을 개선한 것으로 추정된다.

갤럭시노트10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출시 국가에 따라 퀄컴 스냅드래곤 855와 삼성 엑시노스 9820 칩셋이 탑재된다. 램은 8GB(기가바이트)에서 최대 12GB까지 탑재되고, 저장 장치도 최대 1TB(테라바이트)까지 나올 전망이다. 배터리는 프로모델에 4500mAh 용량이 적용된다.

갤럭시노트10은 8월 중순 사전 예약을 거쳐 같은 달 말 출시될 예정이다. 가격은 일반 모델이 120만 원대, 플러스 모델이 140만 원대가 될 전망이다. LTE, 5G 모델로 나뉘며 국내에는 5G 모델로만 출시된다. 송영록 기자 syr@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모든 사업체는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법 시행령 제5조의2, 법 시행령 제86조(과태료)

※ 단,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 실시 가능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모두가 행복한 직장 생활의 시작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문의: 1588-1519

무역분쟁 때마다 샌드백 신세... 재계 "정부는 뭐하나"

외교싸움에 멎는 韓경제

국내 재계가 또다시 '고래싸움'에 휘말렸다. 미·중 무역 전쟁에 이어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재계에서 '불확실성조차 불확실해졌다'는 불만이 고조되는 이유다.

재계는 양국 경제인들이 머리를 맞댄 지 일주일도 안 돼 한일 관계가 경색 국면에 접어들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에서 바라본 한일관계 토론회'를 열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기업 간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당시 손경식 회장은 "최근 들어 한일 경제협력 관계에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바, 지금이야말로 한일 양국 경제인들과 기업 간에 더욱 활발한 경제·문화·인적 교류를 통해 신뢰와 협력 관계를 확고하고 양국의 전통적인 우호적이고 동반자적인 관계 회복에 기여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말이 무색하게 양국의 갈등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이 같은 이벤트(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가 벌어졌다. 보호무역주의 기조 자체를 기업이 바꿀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다"며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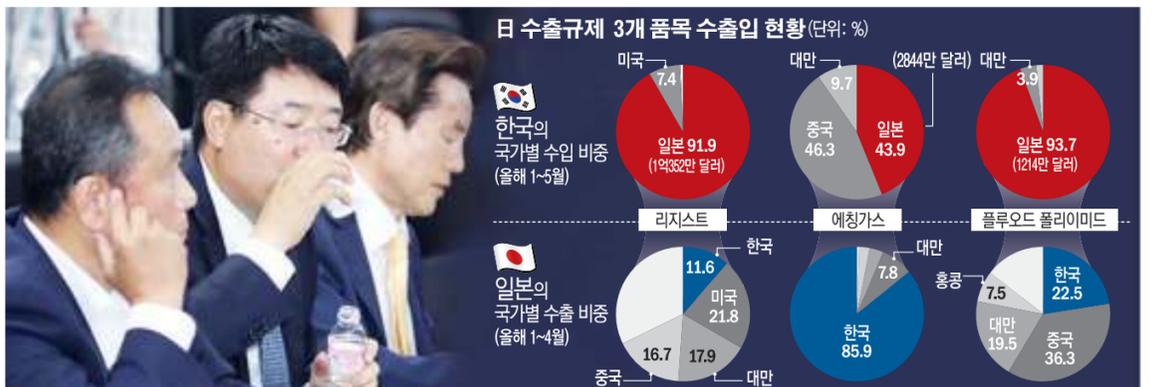
日 경제인과 '관계개선' 손잡은지 일주일 만에 "수출 규제" 날벼락 반도체 중장기적 침체 우려에도 묘수 없는 정부...기업만 발동동

위해 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분쟁의 직격탄과 가격하락·수급 불균형으로 고전하고 있는 반도체 업계의 걱정도 날로 깊어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4% 감소한 476억 달러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중화권 수출은 26.5% 감소했다. 올해 하반기 반도체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감소하고, 연간으로는 작년 대비 21.1%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한일 관계 변수까지 생기면서 반도체 수출 감소폭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반도체 제조사들은 재고 비축, 국내산 대체 및 공급처 다양화 등으로 당장의 재료 수급에는 대응할 수 있다. 더 큰 걱정은 중장기적 전망산업 침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와중에 한일 갈등이 불거지면서 또 다른 경제 불확실성 변수로 등장한 것이다.

영국 투자은행 바클레이스는 화웨이에 대한 제재 등 기술 분야 갈등으로 하반기 반도체 경기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노무리는 반도체 수출이 3분기까지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한 가운데 1일 오후 수출상황 점검회의가 열린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전세원 삼성전자 부사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시

악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S&P는 최근 SK 하이닉스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낮춘 상황이다.

기업들은 정부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통상 마찰이 빚어질 단초가 일제 강제 징용배상이라는 외교문제가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을 밝혔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년 정도가 소요된다.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일본산 핵심 소재 재고는 2~3개월분에 불과하다. 특히 일본 마이니치신문 등은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 소재 수출 규제 제동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도해 일본의 압박은 향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그런데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후속 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하고 청와대는 이를 짚는 등 정부가 기업들의 절박감을 체감

하지 못하고 있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기업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별로 없다. 소재 품목을 국산화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먼저 정부 실무자들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WTO 원칙에 위배되는 사안인지도 살펴보고, 관련 분야에서 협의체를 만들 수도 있다"면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혼란

※ 출처: 니혼게이지신문

| 일본 정부 규제 대상품목(대부분 한국으로 수출) | 영향 받는 한국 대기업 | 글로벌 업체 영향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지스트(광광액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 받는 업체: JSR, 도쿄오카공업, 신에츠화학공업, 후지필름 에칭가스(반도체 세정용 고순도 불화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타라케미카, 모리타화학공업, 쇼와덴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디스플레이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S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성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OLED 분야 세계 1위 SK하이닉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세계 3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니, 파나소닉 등 일본 업체 컴퓨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P(미국), 레노버(중국) 등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플(미국), 화웨이(중국) 등 |

'中 패린美' 따라 '韓 치는 日' 동맹국 갈등에 난처한 트럼프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경제 전쟁으로까지 번지면서 미국이 난처한 입장에 놓였다. 두 동맹국의 싸움에 어느 편도 들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불똥이 자칫 미국에까지 튈 수 있어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일본니혼게이지신문(닛케이) 등 주요 외신들은 2일(현지시간) 일본의 반도체 원자재 수출규제 조치는 글로벌 기술 공급망에 예상치 못한 타격을 준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WSJ는 핵심 소재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일본 정부의 단속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생산이 차질을 빚는다면 이들 부품이 들어간 전 세계 스마트폰 생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도 2일자 사설을 통해 "징용공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이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통상 정책을 꺼내면 일본 기업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고, 장기적으로도 불이익이 많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일본 소재기업들이 한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잃을 수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으로 한국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일본 기업들 역시 타격을 받아서 아베 신조 정부의 조치는 자국을 스스로 공격하는 꼴이라고 꼬집고 나섰다.

아베 총리는 2일자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날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소

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로 행해 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충격파는 한일 양국에 그치지 않는다. 한 일본 전자 대기업 임원은 닷케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메모리 등의 공급이 막혀 아이폰 생산이 줄어들면 애플에 대한 부품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악순환을 우려했다. 애플은 시가총액 기준 세계 1위 업체로, 미국 증시 투자심리를 좌우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 동맹국 간 싸움이어서 입장을 밝히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그동안 미국은 일본의 전쟁 책임에 대해선 대립 관계였지만, 한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을 때면 방관자적인 입장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불편한 관계를 의식한 듯 1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일 정상을 번갈아가며 치켜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주 성공적이었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직후에 미국 대표단과 나를 맞아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고 했고, 아베 총리에 대해서는 "환상적이고 잘 운영된 G20을 주최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축하를 전한다"면서 "빠진 것도, 실수도 없었다. 완벽했다. 일본인들은 총리가 매우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오늘의 체지방 관리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100% 유기농 녹차를 직접 재배합니다

녹차카테킨은 주원료인 녹차의 질이 제일 중요하니까, 국내산 녹차를 직접 재배합니다 독자적인 AP 녹차연구기술의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현대인의 문제적 식습관으로부터 체지방 감소와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루 세 정 건강한 습관입니다

특허받은 녹차카테킨으로 한국인 건강맞춤

- 고열량식이 섭취로부터 체지방 관리**
메타그린 녹차 카테킨이 고열량, 고탄수화물 식단이 잦은 한국인의 체지방 관리를 도와 대사 건강을 케어합니다
- 대사 건강을 위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메타그린의 녹차추출물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약처 인정 기능성 원료로 믿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세포 대사를 유지하는 항산화 작용**
녹차추출물과 비타민C를 함유,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생성되는 유해산소로부터 대사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튜브에서 바이탈뷰티를 검색하세요

100% 유기농 국산 녹차
오실록 농장 직접 재배 관리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고열량 음식 섭취로부터 체지방 감소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약처 인정 기능성 원료로 믿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녹차추출물, 비타민 C
46.8g (520mg X 90정)

제품상담 구매문의 |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mall.com

바이탈뷰티

지엠·현대重 떠난 후 매출 '뚝'... "은행 대출마저 막혀"

벼랑 끝에 선 협력사

"도장공장 있지. 거기 지금 매출로 나와 있거든? 사면 바로 납품할 수 있어. 10억 만 좀 해줘봐."

군산 국가산업단지 A사의 2층 사무실. 김모 부사장이 현장소사를 나온 은행 이모 팀장의 등을 툭툭 치며 말한다. 하루이를 아니라는 듯 이모 팀장은 한숨을 푹 쉰다. "저도 해주어야 쟁쟁. 근데 명분이 있어야지. 거래처 있다고 다 되나요. 얼마 빌려주면 얼마만큼 수익을 낼 수 있겠냐. 이런 청사진을 보여줘야 되는데.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있어요?" 김모 부사장은 우물쭈물 답을 못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대로는 답이 없어."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의 갑작스러운 파산은 이 두 원청업체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돈을 벌어들인 수많은 하청업체들에 직격탄을 날렸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게' 된 협력사들은 거대 기업이 남긴 텅 빈 부지만을 바라보며 경영난에 빠졌다.

◇원청 의존 높은 협력사, 이미 도산... "현대중공업 돌아와야" 기약없는 희망뿐 = A사는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10여 년 넘게 오로지 한국지엠의 1차 부품사로서 공장을 운영했다. A사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들은 100% 한국지엠 군산 공장으로 들어갔다. 한마디로 한국지엠은 A사의 "모든 것"이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한국지엠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김 부사장은 "한국지엠이 공장을 폐쇄한 건 작년이라도 조짐은 그전부터 좋지 않았다"며 "2010년 이후 점점 가동률이 떨어지더니 2014년에는 생산라인이 절반밖에 안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회고했다. 뒤늦게 A사는 한국지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시작한다. 한국지엠에 '올인'하던 납품을 타타대우상용차와 50대 50으로 나눈 것이다. 그 이후로 한국지엠 공장의 가동률은 점점 더 떨어졌고, A사의 매출도 나날이 줄어들었다.

그나마 A사는 일찌감치 위기를 느끼고 대안을 찾은 경우다. 김 부사장은 "우리는 그나마 지엠공장이 가동을 중단하기 전에 추가 납품처를 확보해 이 정도라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엠 의존률이 70~100% 됐던 것들은 이미 다 문을 닫은 상태"라고 했다.

김 부사장은 정부의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한탄했다. 그는 "정부가 지원하는 걸 실제로 보면 답답할 노릇"이라며 "예를 들어 지엠이랑 얼마나 오래, 깊이 거래해 왔는지 등을 따지지 않고 그저 거래한 내역서, 명세표만 갖고 가만 지원해주기 십상이다. 업체에 직접 가보지도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의 사외 협력업체였던 변영중공업과 사내협력사 B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008년 설립된 변영중공업은 2009년 2월 현대중공업의 절단·성형 1차 협력사로 등록된 뒤 10여 년간 현대중공업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하지만 군산조선소가 폐쇄된 이후 2년 반 동안 변영중공업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받은 일감 수는 '0건'이었다.

박진정 변영중공업 고문은 "지금 군산에 있는 87개 협력사들의 업무는 전적으로 현대중공업에 의존했다"며 "(조선소 폐쇄 이후) 산업단지 내부나 목포나 울산이나 평택, 충청도 등 외부에서 하나둘씩 주주해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군산조선소의 가동률은 20~30% 수준이다. 직원 10명 중 8명은 공장을 떠났다. 2015~2016년 당시 80억 원 정도였던 연매출은



군산 국가산업단지 현황

입주 제조업체 현황

| | 2016년 12월 | 2017년 12월 | 2018년 12월 | 2019년 4월 |
|--------|-----------|-----------|-----------|----------|
| 입주(개사) | 637 | 687 | 688 | 693 |
| 가동(개사) | 511 | 540 | 486 | 508 |
| 가동률(%) | 80.2 | 78.6 | 70.6 | 73.3 |

생산 및 수출 실적



고용 추이(단위: 명)



군산시 실업급여 집행 추이(단위: 건)



1 잡초만 무성한 국가산업단지 보행로 2 텅 빈 국가산업단지 도로 3 한국지엠 납품업체 카라 공장 외벽에 '해보지 하면 된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지나친 원청업체 의존에 발목

지엠·현대重 의존도 최대 100% 독자 기술·납품처 확보 못해 매출 하락·공장 폐쇄 등 직격탄

기약없는 희망만 '학수고대'

조선소 부활 사실상 어렵지만 "재가동, 문재인 대통령 공약 그냥 내버려 두진 않을 것"

정부 지원도 제대로 못 받는 기업

원청업체 명세표로 지원 결정 현장 보지도 않는 경우 다반사 협력사 "답답할 노릇" 하소연

8억 원 정도로 쪼그라들었다.

B사는 군산조선소 안에 있던 사내협력사였다.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은 뒤 B사도 덩달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조선소 밖의 공장을 빌려 물건을 만들고 있다.

B사의 김모 사장은 "조선소 폐쇄된 뒤 공장에 있던 사무용품만 갖고 나왔다"며 "지금은 밖의 공장을 임대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창 때 30억 원이었던 매출은 3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김 사장은 "작년까지는 그래도 좀 돌아갔는데 올해는 거의 못하고 있다"며 "은행 대출도 막혀 있다"고 토로했다.

군산조선소의 부활은 힘들다는 것이 산단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그럼에도 협력사들은 실낱 같은 희망을 놓치지 못한다. 박 고문은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며 "시한은 얘기 안 했지만 1조 원 들여 만든 군산조선소를 그냥 내버려 두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젠가는 가동하지 않겠냐는 희망"을 품고 있다고 밝혔다.

◇"설마 망하겠어"가 발목 잡아- 기술개발, 거래처 다변화가 생존의 '열쇠' = "기술력이 없으면 죽는다. 이게 현대중공업이나 한국지엠 사태의 교훈입니다." 10여 년간 군산 국가산업단지 업체들과 거래를 해온 은행 관계자의 말이다. 독자적 생존을 위한 노력 대신 원청업체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협력업체의 안일한 경영도 군산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그는 "현대중공업이나 한국지엠 협력사 모두 원청에 지나치게 의존했다. 독자적

기술을 개발하거나, 납품처를 다변화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설마 망하겠어"라는 태도가 협력사들의 발목을 잡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해보지! 하면 된다!" 자동차 부품 도장(페인트) 업체 카라 공장의 파란 외벽에는 이런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쌍용차와 한국지엠을 중심으로 납품을 해온 카라 또한 한국지엠 공장 폐쇄의 직격탄을 맞았다. 2017년 34억 원이었던 매출액이 1년 새 15억 원으로 반토막났다. 전광일 카라 사장은 "지엠 폐쇄 이후 작년 12월까지 매출이 확 줄었다"며 "이미 5년 전부터 지엠이 안 좋아지면서 매출은 계속 악화해왔다"고 말했다. 흑독한 구조조정이 이어졌다. 2017년 40명가량이었던 직원을 지난해 한국지엠이 폐쇄된 5월 19명으로 줄였다.

하지만 올해 들어 분위기는 반전됐다. 지난해 12월 현대·기아자동차의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SQ) 인증을 취득했기 때문이다. 이후 카라는 쌍용차에 더해 현대차, 기아차뿐만 아니라 러시아 업체까지 매출처를 다변화하기 시작했다. 이윤이 별로 남지 않았던 사출(플라스틱 부품 제조) 부문은 과감히 접고 도장만 하기 시작한 것도 주요했다. 1억 원 증반대로 떨어졌던 월매출은 6월 현재 3억 원으로 올라섰다. 직원도 다시 40명까지 늘린 상태다. 전 사장은 "한국지엠 공장에 전기차 생산라인이 들어와도 문제는 없다"며 "원청 입장에서 굳이 먼 곳에 도장작업을 맡기려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바리 기자 kimstar1215@ 김보름 기자 fullmoon@

입주기업 10곳 중 3곳 '전원 OFF'

군산 국가산업단지 공장 10곳 중 3곳이 가동을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월 현재 군산 국가산업단지와 군산2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업체는 총 693곳이다. 2016년 말 637곳, 2017년 말 687곳 등 입주 현황만 보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문을 닫긴 했지만 곧바로 문을 닫지 않고 공장만 남겨두는 경우가 있다"며 "최근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증가한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입주 현황만 보면 산업단지가 현대중공업과 한국GM 공장 폐쇄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가동률을 보면 상황은 다르다.

산단에 입주한 제조업체 중 실제로 공장을 돌리고 있는 곳은 2016년 말 511곳에서 올 4월 508곳으로 오히려 3곳이 줄어들었다. 그마저도 지난해 말에는 486곳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와

입주기업 6곳 늘었지만 공장 가동률 10% 감소 수출 12억 달러 '반토막' 실업급여 집행도 1만건 ↑

맞물려 2016년 말 80%를 넘겼던 가동률도 70%대 초반으로 10% 포인트가량 낮아졌다.

이 밖에도 산단의 경제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생산실적은 6조756억 원이었다. 2017년 말 6조3376억 원에서 1년 새 3000억 원 가량 줄어들었다. 올 4월까지 2조1282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출실적은 2017년 말 20억 3600만 달러(약 2조37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11억 8100만 달러로 1년 새 거의 반토막 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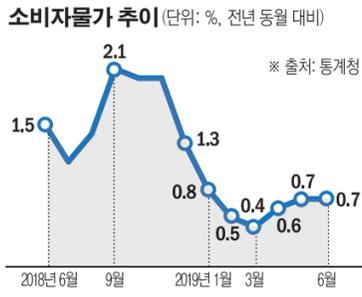
회사들이 문을 닫자 떠나는 노동자들도 늘었다. 2016년 말 1만 5000명에 달했던 노동자 수는 2017년 말 1만 1000명대로 떨어진 뒤 지난해에는 1만 명 아래로 줄었다. 4월 현재 9794명이 고용된 상황이다. 약 2년 새 약 5000명이 공단을 떠난 셈이다.

이와 맞물려 실업급여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2016년 2만 9191건이었던 실업급여 집행 건수는 2년 만에 3만 9544건으로 1만 건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2월까지만 6245건이 집행된 상황이다.

군산=김바리 기자 kimstar1215@ 김보름 기자 fullmoon@

소비자물가 상승률 6개월 연속 0%대

석유류 3.2%·채소류 2.5% ↓
주택 월세 0.6% 하락도 영향
상반기 누계 상승률은 0.6%



소비자물가가 6개월째 0%대 상승을 이어갔다. 국제유가 하락과 유류세 인하로 석유류물가 내림세가 이어지고, 서비스물가가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억제된 결과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8로 전년 동월보다 0.7% 오르고 전월보다 0.2% 하락했다. 상반기(1~6월) 누계 상승률은 0.6%로 2015년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상반기 추세가 하반기에도 계속되면 연간 상승률은 1999년(0.8%)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단 유류세 인하가 다음 달 종료되고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어 하반기엔 물가 상승률이 1%대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근원물가인 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 상승률도 0.9%로 4개월째 0%대에 머물렀다.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와 생활물가지수는 각각 0.7%, 0.8% 올랐다. 신선식품 지수는 전년 동월과 같았으며, 전월보다 3.5% 하락했다.

품목 성질별로 상품은 채소류(-2.5%), 수산물(-0.9%), 석유류(-3.2%)가 하락하며 0.7% 상승에 머물렀다. 석유류는 종합물가지수를 0.14%포인트(P) 끌어내렸

다. 서비스도 집세와 공공서비스가 각각 0.2% 내리며 1.0% 상승에 그쳤다. 품목별로는 서비스 중 택시료(15.2%), 시외버스료(13.4%)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학교급식비(-41.4%)가 크게 내렸다. 집세에선 월세가 0.6% 하락했다. 그나마 농산물은 쌀(10.1%), 현미(20.8%) 등 곡물을 중심으로 3.2% 올랐고, 서비스 중에선 개인서비스가 1.9% 오르며 물가안정목표(2.0%)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다.

김윤성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일부 소비 부진의 영향도 있을 수 있으나, 서비스 부분이 낮은 상승률 보였고 석유류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이로 인해 1% 미만의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5년에는 2월부터 12월까지 상승률이 0%대였다"며 "그때는 석유류의 영향이 커 0%대 상승률이 지속됐는데, 지금은 공공서비스 쪽에서 낮고 집세도 낮아진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iye@

국민 의료비 2.2조 경감... 건보재정은 '비상'

'문재인 케어' 2년 명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2년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2조2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민연금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문재인 케어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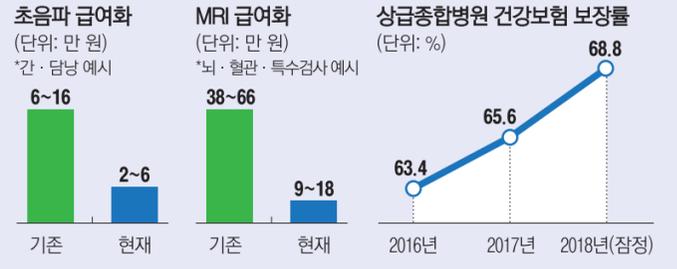
문재인 케어로 혜택을 본 국민은 과제 간 중복 수혜를 포함해 36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2조 2000억 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었다. 계층별로는 노인·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이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상한액 하향 조정, 재단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으로 8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효과를 봤다.

특히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 진료·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선택진료비가 폐지됨에 따라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절반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중증질환자 이용빈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6년 63.4%에서 2017년 65.6%, 지난해에는 68.8%까지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30년의 성과와 한계 위에서 '전 국민 평생에 건강보장'을 위해 태어났다"며 "최소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에서 '최대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으로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비 부담 경감

- 국민 약 3600만 명, 2조2000억 원 ↓
- 비급여의 급여화 1조4000억 원 ↓
- 취약계층 8000억 원 ↓
- 중증환자 시행 전 대비 1/2~1/4 수준



MRI·초음파 등 건보 적용

중증환자 의료비 4분의1로 ↓
文대통령 "보장률 70% 목표"

20% 국고서 지원해야 하지만
13.6%만 지원... 6조 미지급
생색내고 부담 가입자에 전가

통령은 "임기 내에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게 '문재인 케어'의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는 2년간 성과를 토대로 보다 많은 국민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단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건전성 관리는 숙제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최근 10년간 평균치(3.1%) 이내에서 인

상하고 국고지원 확대, 재정누수 관리를 병행함으로써 2023년 이후에도 누적적립금을 10조 원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 상황에서 국고지원 확대는 복지부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올해 국고지원율은 보험료 수입의 13.6%로, 법으로 정해진 지원율(20%)을 크게 밑돌아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미지급된 국고지원금만 6조 7000억 원에 달한다.

결국 국고지원이 정상화하지 않으면 문재인 케어에 따른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가입자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추진태스크워킹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미지급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 24조5000억 원(누적)을 즉각 투입해 의료개혁을 위한 단초를 제공해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민 기자 lawsdm@
세종=김지영 기자 iye@

현대산업개발 컨소 '인천신항 개발' 우선협상자 선정

2000억 규모... 내년 착공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HDC현대산업개발 등이 꾸린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2일 민간 컨소시엄인 '(가칭)인천신항 배후단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신항 배후단지는 HDC현대산업개발이 45%, 늘푸른개발 30%, 토지산업개발 20%, 활림건설 2.5%, 원광건설 2.5%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약 2000억 원의 민간사업비를 투입해 2022년까지 토지 및 기반시설(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조성 공사를 마치고 2023년부터 고부가가치 물류·제조기업에 배후단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 6월 민간이 최초로 사업을 제안

한 이후 해수부는 항만법에 따라 올해 3월에 제3차 제안공모를 실시했다. 이어 인천신항 배후단지가 단독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개발·재무·관리운영 3개 분야의 추진 계획을 평가해 기준(분야별 배점의 60%, 총점 80점 이상)을 모두 만족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사업대상지는 인천신항 1단계 배후단지 면적 214만㎡ 중 2구역 94만㎡이며 주요 도입시설은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업무 편의시설이다. 해수부는 올 연말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 사업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2022년 배후단지 개발이 끝나 상부시설까지 완공되면 3조4175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9400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출범

박영선(왼쪽 일곱 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출범식 및 스마트공장 상생 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스마트공장 상생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구 중부발전 사장, 유형열 남동발전 사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 박상철 두산 부사장, 장인화 포스코 사장, 김중호 삼성전자 사장, 박 장관, 공영은 현대자동차 사장, 송대현 LG전자 사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김순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이상진 한국표준협회장, 박한구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장.

박영선(왼쪽 일곱 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출범식 및 스마트공장 상생 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스마트공장 상생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구 중부발전 사장, 유형열 남동발전 사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 박상철 두산 부사장, 장인화 포스코 사장, 김중호 삼성전자 사장, 박 장관, 공영은 현대자동차 사장, 송대현 LG전자 사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김순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이상진 한국표준협회장, 박한구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장.
뉴시스

면접 때 "결혼했어요?" 물으면 300만원 과태료

앞으로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주며 청탁하거나 행사하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업무와 무관한 키, 체중, 혼인 여부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낸다.

고용노동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7일부터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경우 1회 위반 시 1500만 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

과된다. 또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 1회 위반 시 300만 원, 2회 위반 시 4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부터는 500만 원이 부과된다.

16일부터 사업주가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때 지켜야 할 기준도 개선된다. 기숙사는 화장실, 세면·목욕 시설, 채광·환기 설비, 냉난방 시설, 화재 예방 설비 등을 갖춰야 하고 침실, 화장실, 목욕 시설 등에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인용품 보관을 위한 수납공간도 있어야 한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전력 계통망 조기 확충...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

전국 사업장 14% 전력망 부족... 변전소 건설 6년→3년 단축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 계통망 조기 확충을 통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산업부는 설비 보강과 신규 변전소 조기 준공 등을 통해 2024년까지 전력 계통 7.2GW를 확보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도 한전의 전력망에 연결을 못 해 시설을 놓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전국의 태양광 사업장 중 14%는 전력 계통 부족 등으로 1년 넘게 사업을 시작하

지 못한 채 연결 순서만 기다리고 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이 빠르게 늘고 있는 호남 지역에선 이 같은 현상이 특히 심하다.

산업부가 신경을 쓰는 대책은 신규 변전소 공기 단축이다. 통상 변전소를 짓는 데는 6년이 걸리지만 부지 확보 등에 드는 시간을 줄여 공기를 3년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5년간 호남권을 중심으로 신규 변전소 14곳을 지어 전력 계통 2.8GW를 확보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태양광 보급 정책의 기조도 바

꾸기로 했다. 기존엔 태양광 사업 부지로 산지나 저수지가 주로 선호됐지만 앞으로는 염해 농지나 염전, 옥상 등 유휴부지 중심으로 보급 정책을 펼치는 방침이다. 산지나 저수지 태양광 사업이 환경 파괴 논란이나 지역 내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태양광 발전 사업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경찰과 태양광 투자 사기를 함께 수사하고 사기가 확인된 사업자는 정부 태양광 보급 사업에 5년간 참여할 수 없다. 산업부는 내년까지 태양광 발전 사업 표준 계약서도 만들어 불합리한 사업 계약을 예방키로 했다.
세종=박중화 기자 pbell@



환경분야사회적기업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모집기간_ 2019.6.19 ~ 7.12



주유소에 대한 관점을 뒤집으면?
생활의 스마트 네트워크, SK주유소



생각한다 i 더극소남



자동차 소재에 대한 상식을 뒤집으면?
미래자동차 산업을 바꿀 초경량 소재



사우디·러시아 밀월에 'OPEC 무용론' 부상

OPEC+, 감산 9개월 연장 확정 두 정상, G20회담서 이미 결정 이란 "권위 잃고 붕괴 직전" 비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밀월관계를 과시하면서 '석유수출국기구(OPEC) 무용론'이 부상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4개 OPEC 회원국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총회에서 지난달 말 끝난 원유 감산 정책을 내년 1분기까지 9개월 더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OPEC은 2일 러시아 등 비(非)OPEC 산유국과의 모임인 'OPEC 플러스(+)'에서 이를 최종 확정한다.

그러나 OPEC 맹주인 사우디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 주말 폐막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별도 회담을 통해 이미 감산을 연장하기로 한 상태여서 1~2일 OPEC+ 총회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하게 됐다.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 OPEC 회원국들이 미국의 제재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사우디와 러시아의 밀월 협상으로 감산이 결정되자 불만도 견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다. 심지어 감산 연장 사실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선수를 쳐서 언론에 공개했다. OPEC이 사우디와 러시아의 들러리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이에 감산이 결정된 상황에서도 이날 총회에서 10시간 이상의 마라톤 격론이 벌어지고 기자회견도 예정된 시간보다 5시간 늦게 이뤄지는 등 OPEC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그대로 노출됐다. 특히 이란은 OPEC이 러시아와 장기 협력관계를 체결한다는 방안이 2016년 이후 비공식적으로 이뤄졌던 OPEC+ 회동을 사실상 공식화하는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비잔 잔가네 이란 석유장관은 "일부 회원국(사우디)의 일방주의가 궁극적으로 중동 주도의 OPEC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라며 "OPEC은 OPEC으로 남아 있어야 한



오스트리아 빈에서 1일(현지시간) 석유수출국기구(OPEC) 총회가 열린 가운데 비잔 잔가네(왼쪽) 이란 석유장관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빈/신화연합뉴스

다. 권위를 잃으면 붕괴 직전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이어 러시아와 사우디 결정을 언급하면서 "이란은 OPEC을 탈퇴하지 않을 것이나 이런 프로세스가 계속되면 OPEC은 죽음에 이를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에너지 자문위원이었던 제이슨 보르도프 컬럼비아대 교수는 "러시아 대통령이 OPEC 총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감산 결정을 발표한 것은 OPEC 회원국들을 서로 소원하게 할 위험이 있다"며 "이란의 반응은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사실 OPEC 내부의 불화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각자 수니파와 시아파의 종주국인 사우디와 이란은 OPEC이 결성된 1960년 9월부터 지금까지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고 CNN방송은 설명했다. 이란과 이라크는 1980년대 10년 전쟁을 벌였다. 이라크는 같은 OPEC 회원국인 쿠웨이트를 침공해 1차 걸프전쟁을 촉발했다.

그러나 미국의 무시무시한 세일혁명만 OPEC의 불화가 이전과는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을 시사한다. 미국은 사우디를 제치고 세계 최대 산유국 지위에 오른 것은 물론 텍사스주 한 주의 산유량만으로도 조만간 사우디를 제위한 다른 OPEC 회원국 생산 규모를 능가할 전망이다. CNN은 사우디와 러시아의 밀월은 미국 세일혁명에 따른 OPEC 시장점유율 축소를 반영한다고 풀이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시진핑과 휴전한 트럼프, 다음 타깃은 EU

美 'EU 에어버스 보조금'에 발끈... 40억 달러 추가 관세 추진

중국과의 무역전쟁 휴전을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유럽연합(EU)에 대해선 무역 공세를 한층 강화한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EU와 특정 EU 국가들을 겨냥한 40억 달러(약 4조6672억 원) 규모의 추가 관세 대상 목록을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된 관세 대상은 체리와 육류, 치즈, 올리브와 파스타, 위스키 일부와 주철 튜브 및 파이프 등 89개 품목이다.

USTR는 유럽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유럽 국가들과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미국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USTR는 4월 EU가 에어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의 연간 피해액이 112억 달러에 달한다며 210억 달러 상당의 대EU 보복관세 목록을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5월 열린 이틀간의 청문회에서 이날 발표된 제품 목록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USTR는 40억 달러 보복관세 제안과 관련해 8월 5일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EU도 미국 정부의 보잉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피해를 봤다며 4월 120억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 품목 예비 목록을 발표했다.

이 목록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기반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던 지역의 농산물에 초점을 맞췄으며 비디오 게

임기와 트랙터, 헬리콥터 등이 포함됐다.

미국과 EU 모두 상대방의 항공기 제조업체 보조금에 대해 WTO에 제소한 상태다. WTO는 미국이 EU를 상대로 제소한 건에 대해서는 올해 여름, EU가 제기한 건에 대해선 내년 초에 각각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U는 "WTO 최종 판결이 나오면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하나 이는 무역분쟁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반발했다.

미국 증류주협회도 이날 "농부와 공급·소매업체 등 미국 기업들이 이미 무역 분쟁에 따른 주요 교역 파트너들의 보복관세로 부정적인 충격을 받고 있다"며 USTR 발표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내놓았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인도 물폭탄... 인명피해 속출 인도에서 몬순(우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1일(현지시간) 두 소년이 서로를 의지하며 폭우로 물바다가 된 뭄바이 시내 거리를 헤쳐 나가고 있다. 뭄바이에서는 2일 새벽 폭우로 용벽이 붕괴해 최소 15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부상을 당 등 곳곳에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도로와 철도가 물에 잠기고 여객기 출몰이 취소되는 등 교통도 마비 상태다. 뭄바이/AFP연합뉴스

IAEA "이란, 우라늄 저장한도 초과 확인" 핵합의 최대 위기... 트럼프 "불장난" 경고

이란이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정한 저농축 우라늄(LEU) 저장한도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핵합의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서 등 국제사회가 우려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일(현지시간) 이란이 핵합의에서 정한 LEU의 저장 한도(육불화우라늄 기준 300kg, 우라늄 동위원소 기준 202.8kg)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IAEA는 사찰단이 이란의 LEU 저장량을 검증한 결과, 이란의 LEU 동위원소의 양이 205kg으로, 저장한도를 약 2kg 넘겼다고 발표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도 "LEU의 저장한도를 넘겼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이 조처는 상대방이 대 이란 제재를 복원했을 때 이란도 핵합의 이행 범위를 줄일 수 있다고 명시한 핵합의 조항에 따른 것"이라며 "핵합의 위반이 아니라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 측이 자



'이란 핵기술의 날'인 지난 4월9일(현지시간)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수도 테헤란의 핵기술 설비를 시찰하며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이란 원자력청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EPA연합뉴스

신이 해야 할 일을 한다면 이런 조처는 되돌릴 수 있다"라며 핵합의를 완전히 탈퇴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란은 2015년 7월 미국 등 5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독일과 이란 핵 프로그램 감축·동결 의무를 처음으로 위반한 셈이다. 이로써 지난해 5월 미국이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이란이 핵합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핵합의가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8일

"핵합의가 일방적이며 대양적이고 끔찍한 협상으로 체결되지 말았어야 한다"며 핵합의의 탈퇴를 선언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단계적으로 발동해 왔다.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고, 지난달 3일에는 이란의 초과분 수출을 지원하는 행위까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란의 저장한도 초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가"란 질문에 "메시지가 없다"면서 "이란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것이다. 이란이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란이 핵합의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핵 관련 약속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이란과 적대 관계인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은 핵합의를 했다"며 "유럽은 이란이 핵합의를 어길 경우 자동으로 경제 제재를 부과하기로 한 만큼 그 약속을 즉시 실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중동 유조선 피습에 '전쟁보험료' 쯤충

호르무즈해협 통과하는 선박 보험료 10배로 인상

글로벌 핵심 원유 수송로인 중동 호르무즈 해협 부근에서 일어난 유조선 피격 사건을 계기로 주변 해역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보험료가 오르고 있다. 피격된 유조선이 일본 해운사가 운항하는 선박이었던 만큼 일본 보험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2일 NHK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호르무즈 해협 부근에서 일본 해운사가 운항하는 유조선이 공격받은 이후 주변 해역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보험료가 기존의 10배로 올랐다. 그동안은 호르무즈 해협 주변을 한 번 통과할 때마다 선체 가격의 0.025%였던 보험료가 해당 사건 이후 0.25%까지 치솟았다. 선체 가격이 100억 엔(약 1077억 원)인 일반 대형 유조선은 통과할 때마다 2500만 엔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선박은 일반 보험과 별개로 '전쟁 보험'에 가입한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미사일과 기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선박 자체 손해나 비용, 배상책임을 보상해준다. 앞서 호르무즈해협 인근 아랍에미리트(UAE) 근해에서는 5월 사우디아라비아 선박

2척을 포함해 4척의 유조선이 사보타주(의도적 파괴행위) 공격을 받았고, 지난달 13일에는 일본 기업이 임대한 선박을 포함한 유조선 2척이 공격을 받았다.

일본 해운사들로 구성된 일본선주협회의 나이토 다다키 회장은 "보험료 인상을 우리만 부담하기는 어렵다"며 "비용이 더 증가하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유조선 공격 이후 해상 운임도 급등하고 있다. 지난달 사고 이후 1주일 새 유조선 운임은 2배로 뛰었다. 선주들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 중동행 계약을 기피하면서 선박 공급이 줄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유조선 운임 지표인 월드스케일(기준 운임=100)은 50으로, 용선료로 환산하면 1일당 2만5000달러(약 2917만 원)였다. 이는 사고 직전인 6월 12일의 2배 수준이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운임이 갑자기 뛰는 것에 대해 "유조선은 4~6월이 비수기로 꼽힌다"며 "7월부터 적재 선박 거래 문의가 본격화하는 시기와 겹친 것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뇌 CT·MRI’ 이상 없어도 경증치매 보험금 받는다

금감원, 치매보험 약관 개선

금융감독원이 치매 보험 부실약관 논란 조기 진화에 나섰다. 앞으로 보험사는 경증 치매 보험금 지급 시 뇌 전산화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법(MRI)상 이상소견이 없어도 전문의의 소견으로 치매 판정이 내려지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감원은 2일 치매 보험 약관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행 보험사의 치매 진단 기준은 ‘전문의를 검사와 함께 뇌 CT·MRI, 뇌파검사, 뇌척수액 검사 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약관에 명시됐다. 이번 개선안에는 ‘의학적 검사와 결과 종합평가를 기초로 하며, 뇌 영상검사 등에서 치매 소견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증 치매와 달리 경증 치매는 뇌 CT나 MRI 촬영 시 이상소견이 나올 가능성이

전문의 소견으로 치매 판정 가능 질병코드·약제 투약 조건 삭제 기존 판매상품도 보장 동일 적용 업계 “보험사기 악용 우려” 지적

작다. 치매 보험 가입자가 경증 치매 여부를 두고 보험사와 다툰 여지가 충분한 셈이다. 이에 금감원은 “현행 약관상 치매 진단기준과 보험금 지급조건이 소비자 인식과 의학 기준과 차이가 있어 보험금 분쟁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치매 보험금 지급조건을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했다. 현재 일부 보험사는 치매 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특정 치매 질병코드이거나 치매 약제를 일정 기간 처방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자문단은 치매 질병을 표준질병사인분

금융감독원 치매보험 약관 개선안 ※ 출처: 금융감독원

| | |
|------------|---|
| 현행 | 치매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CT, MRI, 뇌파검사, 뇌척수액 검사 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 |
| 개선안 | 뇌 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 |

치매보험 보유계약 현황 (단위: 건)

| | | | |
|-----------------|-----------------|---------------------|----------------------|
| 31만5000 (2017년) | 60만1000 (2018년) | 87만7000 (2019년 1분기) | 380만 건 (총 치매보험 계약건수) |
|-----------------|-----------------|---------------------|----------------------|



류표(KCD)로 분류하기 곤란한 때도 있고 치매 약제 투여 사실은 치매 진단 시 필수 조건이 아니라고 했다. 이에 개선안에는 치매 질병코드와 약제 투약 조건을 삭제했다.

기존 가입자도 개선안을 적용받는다. 강한구 보험감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표현처럼 소급적용이 아닌, 현재 약

관상 기초로 해야 한다는 부분의 보험사의 자의적 해석과 보험금 지급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 부분을 바로 잡는 것”이라며 “개선안은 기존 판매상품에도 갈게 보험금 지급할 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약관 개선을 악용해 보험사기에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CT나 MRI 등 검사를 전문의 소견으로 대신하면 ‘거짓 진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치매보험 약관의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견 수렴 기간도 짧았고 (문제를 수정할) 기간도 충분치 않았다”며 “보험사기 문제 등을 걸러낼 방안을 업계와 논의한 뒤 발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한구 국장은 “치매 진단에는 여러 검사법이 있다”며 “뇌 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서 치매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검사를 통해 치매 진단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3월 말 기준으로 총 치매 보험 보유 계약은 380만 건에 달한다. 특히 올해 1분기에만 약 88만 건의 가입이 이뤄져 치매 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60만 건, 2017년에는 31만5000건의 신계약이 이뤄졌다. 정용욱 기자 dragon@



우리카드, 924억 규모 소군본드 발행 우리카드는 2일 924억 원(8000만 달러) 규모의 소군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소군본드는 일본 현지 발행 비엔화표시 채권이다. 이번 물량은 미쓰이스미모토은행(SMBC)이 대부분을 인수한다. 1일 우리카드 정원재(왼쪽) 사장과 히로시 이리에 SMBC 부행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우리카드

3년간 성실히 빚 갚은 취약계층, 최대 95% 채무 탕감

원금 합산 1500만원 이하 적용

기초수급자나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소액채무 부담이 8일부터 한층 줄어든다. 연간 3500명이 제도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또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는 상환 능력에 맞춰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2일 사회 취약계층이 채무원금 합산 15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무를 3년간 성실히 갚으면 최대 95%까지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를 발표했다.

현재 해당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70~90% 채무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상환 기간이 길어 채권자와 채무자에 큰 효용이 없

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금융위는 일정 기간 성실 상환 노력이 있으면 감면율을 확대하는 ‘정신형 채무조정원리’를 도입했다.

이에 기초수급자와 장애인연금수령자는 먼저 특별감면율을 상향 적용해 80~90% 채무원금을 감면받고, 해당자가 감면된 채무를 3년간(50% 이상 상환) 연체 없이 성실하게 갚으면 잔여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채무원금이 700만 원(상각채권 300만 원, 미상각채권 400만 원)인 월 소득 140만 원 2인 고령자 가구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실제상환액이 490만 원에서 17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성실상환 면책은 채무원금 합산 1500만 원 이하 소액채무자에 한해 적용된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기존에 금융사는 채무조정 수용 대신 경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실적은 지난해 50건으로 줄었다. 이에 채무자 상환조정 능력에 맞게 방법을 적용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일반형(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실거주 주택·연체 30일 초과)과 생계형 특례(주택시세 6억 원 이하·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연체 30일 초과)로 구분한다. 일반형은 A·B·C형으로 나눠 장기분할상환과 상환유예, 금리 인하 등을 차례로 적용하며 생계형 특례는 기존 단일형 프로그램을 갈게 적용한다.

정용욱 기자 dragon@

허인 행장, 대면-비대면 채널 강화 ‘두 토끼’

“사람 중심 대면 채널 강점 유지 비대면 채널 경쟁력 강화할 것”

허인(사진) KB국민은행장이 사람 중심의 디지털 은행을 강조했다.

허 행장은 1일 사내방송을 통해 발표한 7월 정기회사에서 “KB국민은행의 지향점은 ‘디지털만 잘하는 은행’이 아니라 ‘디지털도 잘하는 은행’이라며 “모든 고객이 디지털로만 거래하는 은행이 아니라, 고객이 더 나은 경험을 받는다고 느끼게 해주

는 은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면 채널의 강점은 유지하고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사람 중심의 디지털 혁신으로 고객과 직원이 모두 즐겁고 편리한 경험을 하는 KB를 만들어 가자”고 언급했다.

허 행장은 “그 대표주자가 바로 ‘혁신 금융 서비스 1호 사업’에 선정된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기반의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울러 소비자 정맥 인식 한 번으로 통장, 도장, 비밀번호 없이 청구출금이 가능한 ‘손으로 출금 서비스’도 노령 고객 등 디지털 소외 계층을 배려한 사람 중심의 디지털”이라고 소개했다.

또 허 행장은 역량과 성과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가장 핵심적인 경영 전략임을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 기반의 첨단 디지털 기술을 인사에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의 기본정신 아래 개방적이고 분권화된 ‘열린 HR’로의 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카뱅 ‘내 신용정보’ 가입자 300만명 돌파 앱으로 신용등급 확인·관리 대출금리 인하 요청하세요

연체·보증내역 한눈에 조회 대출금리 산정 불이익 해소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말부터 선보인 신용정보조회 서비스가 인기다. 그간 은행이 사실상 독점하던 신용정보를 앱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자 수가 크게 늘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신용조회서비스 ‘내 신용정보’ 가입자가 지난해 26일 기준으로 30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10월 말 출시된 이후 8개월 만에 이룬 성과다. ‘내 신용정보’는 신용점수를 비롯한 카드 이용 금액, 대출 보유 현황, 연체, 보증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뱅크의 개인 신용관리 서비스이다.

현재 토스와뱅크카드 등 모바일 금융플랫폼에서 비대면으로 신용정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은행업을 인가받은 기업에선 카카오뱅크가 유일하다.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신용정보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카카오뱅크는 국내 신용평가사인 코리아크레딧뷰(KCB)와의 제휴를 통해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내 신용정보’ 서비스에 대한 인기는 그간 암암에 써왔던 정보에 대한 고객들의 갈증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무방하다. 일반 시중은행에서 자신의 신용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선 지점을 직접 방문해 관련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확인하더라도 세세한 점수가 아닌 등급으로만 자신의 신용등급을 파악해야 했다.

신용정보를 사실상 금융기관이 독점하는 상황은 고객으로 하여금 신용관리에 소홀하거나 무관심하게 한다. 이로 인해 금융거래 과정에서 은행은 고객의 정보를 알지만 정작 고객 스스로는 알지 못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작용했다. 지난해 은행권 대출금리산정 논란도 금융기관과 고객 사이의 정보 불균형으로 인

카카오뱅크 ‘내 신용정보’ 서비스 300만 명 돌파



*‘내 신용정보’ : 신용점수, 카드 이용 금액, 대출 보유 현황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카카오뱅크가 ‘내 신용정보’ 서비스를 개시한 지 하루 만에 약 14만 명의 고객이 이를 이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스스로 정보의 주인이 돼 신용등급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대출이나 예금 등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때 ‘호구 고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셈이다.

아울러 카카오뱅크는 단순히 신용정보에 대한 정보를 단편적으로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보를 고객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우선 신용정보에 수집되는 정보가 변경될 경우 고객에게 알린다. 예금이나 대출이자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용등급이 등락할 경우 변경된 이유를 알려줘 고객이 신용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정보는 최근 법적 권리로 보장된 금리인하요구권에도 반영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되면서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카카오뱅크는 ‘내 신용정보’의 신용등급이 변경되면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알림을 제공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고객이 카드 사용 내역이나 신용등급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편리해서 서비스 이용 고객이 점점 늘고 있다”며 “결국 이것이 고객 혜택으로 이어지는 게 카카오뱅크의 취지와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진산 기자 jinsan@

삼성, 시스템반도체 '비밀병기' 8배속 AI 알고리즘 공개

데이터 8분의 1 축소 기술 개발 칩 크기 줄이고 소비 전력 낮춰 클라우드 서버 없이 자체 연산 자율주행 등 안정적 동작 강점



세계 최고 수준의 '온 디바이스 AI 경량화 알고리즘' 개발에 참여한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한재준(왼쪽부터) 마스터, 손창용 전문연구원, 정상일 전문연구원, 최창규 상무. 사진제공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2030년 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1위에 오르기 위한 '비밀병기'를 공개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온 디바이스 AI(On-Device AI) 경량화 알고리즘'이다. 온 디바이스 AI는 서버를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일 삼성전자는 뉴스룸을 통해 종합기술원이 최근 컴퓨터 비전 분야 글로벌 최대 학회인 CVPR(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에서 발표한 '온 디바이스 AI 경량화 알고리즘'을 소개했다.

이번 발표는 기존 대비 4배 이상 '가볍고', 8배 이상 '빠른' AI 알고리즘에 대한 것이다. 이 알고리즘은 AI 반도체에서 전력 소모와 연산 기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열쇠'로 평가받고 있다.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은 반도체가 특정 상황을 인식할 때 정확도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기존 32비트로 표현되는 서버용 딥러닝 데이터를 4비트 이하로 낮출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딥러닝 데이터 크기를 8분의 1로 줄이면, 기기에서 AI 연산을 수행할 때 속도는 반대로 8배 이상 높일 수 있다. 데이터 크기가 줄어들어 소비전력 또한 획기적으로 낮추면서 빠르게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이번 기술은 AI 시대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온 디바이스 AI 연산을 강화하는 동시에,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보통 AI 기기가 복잡한 연산을 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버를 거치는 것과 달리, 온

디바이스 AI는 수백~수천 개의 연산을 기기에서 곧바로 수행함에 따라 클라우드 서버를 구축하는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자체 연산으로 자율주행, 가상현실(VR) 등의 상황에서 빠르고 안정적인 동작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또 최근 모바일 기기가 지문이나 홍채, 얼굴과 같은 생체정보 보안의 인증수단으로 활발히 쓰이고 있는 가운데, 서버가 아닌 기기 안에 각종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도 크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자체 NPU를 탑재한 스마트폰용 엑시노스9(9820) 칩을 선보이며, 온 디바이스 AI와 AI 반도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 종합기술원이 개발한 온 디바이스 AI 경량화 알고리즘을 엑시노스 시리즈 등 모바일 시스템 온 칩(SoC)뿐만 아니라 메모리, 센서에도 적용하는 등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최창규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상무는 "궁

극적으로 주변의 모든 기기는 물론, 센서가 부착된 사물들이 '두뇌'를 갖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저전력, 고속 연산의 속제를 해결하는 차세대 온 디바이스 AI 기술이 이러한 미래를 열어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온 디바이스 AI 경량화 알고리즘은 메모리 반도체와 프로세서, 센서 등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크게 확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심은수 삼성전자 삼성종합기술원 센터장(전무) 역시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엔비디아 AI 콘퍼런스 2019' 기조연설에서 '온 디바이스 AI'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심 센터장은 "네트워크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곳에서 여행할 때 (클라우드 AI) 통역을 수행하지 못하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온 디바이스 AI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영록 기자 syr@한영대 기자 yeongdai@

말 통하는 'LG사운드바' 119만원부터

LG전자는 2일 구글 어시스턴트를 적용한 2019년형 'LG 사운드바' 2종(모델명:SL10YG, SL9YG)을 출시했다. 2019년형 LG 사운드바에는 오디오 전문기업 메리디안 오디오와 협력해 구현한 고음질 음향 기술이 도입됐다. 또 돌비사의 '돌비 애트모스(Dolby ATMOS)'와 DTS사의 'DTS:X' 등 입체 사운드 기술을 갖춰 현장감 있는 사운드를 고객에게 선사한다. 신제품에는 LG 사운드바 최초로 구글 어시스턴트가 적용됐다. 사용자는 음성 명령만으로 음악 감상, 곡 정보 확인, 스케줄 관리 등을 할 수 있다. 2019년형 LG 사운드바 SL10YG, SL9YG의 출하가는 각각 149만 9000원, 119만9000원이다. 사진제공 LG전자



'내수 주춤' 기아차, 하반기 신차 4종 시동

K7·모하비 부분변경 모델 SUV 셀토스·신형 K5 준비

현대차의 내수 점유율이 50%를 넘어선 가운데 주춤했던 기아차가 하반기부터 신차를 앞세워 반격에 나선다.

2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1~6월 내수 판매는 38만4113대를 기록해 전년 동기(35만4381대)보다 8.4% 증가했다. 시장 점유율 역시 작년 상반기(46.8%)보다 4.0%포인트 상승한 50.8%에 달했다.

현대차의 내수 약진은 신차 효과 덕이었다. 작년 연말 출시 이후 큰 인기를 끈 대형 SUV 팰리세이드를 시작으로 올해 신형 쏘나타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여기에 스테디셀러 그랜저IG와 신형 싼타페가 내수 판매를 이끌었다.

다만 하반기에는 별다른 신차가 없다.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첫 SUV인 GV80 출시를 앞둔 게 전부다.

반대로 기아차는 주력 신차를 잇따라 선보이며 하반기에 본격적인 반격에 나선 것

현대차 내수 점유율 추이 (단위: %, 완성차 5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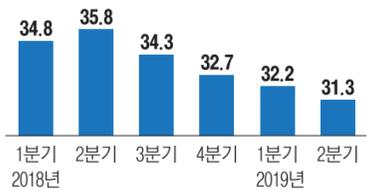
으로 점진된다.

기아차의 내수 점유율은 지난해 2분기 36%를 유지했으나 이후 하락세를 지속해 올 2분기 31% 수준을 간신히 유지했다.

작년까지 신형 쏘렌토와 스포티지, 카니발 등 SUV와 RV들이 신차 효과를 누렸으나 올해부터 신차 효과가 시들해졌기 때문이다. 나아가 현대차 팰리세이드가 8인승 콘셉트를 앞세워 카니발 수요 일부를 잠식했고, 그랜저의 높은 인기에 밀려 K7 판매가 크게 위축되기도 했다. 올 하반기에 기아차는 △K7 부분변경 모델 △소형 SUV 셀토스 △대형 SUV 모하비 부분변경 △K5 3세대(완전변경) 모델을 내놓는다.

전체 신차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형급

기아차 내수 점유율 추이 (단위: %, 완성차 5사 기준)



※출처: 자동차산업협회

이상의 세단과 SUV로 채워지는 만큼, 평균 판매단가(ASP)도 높은 편. 자연스레 신차 효과로 인한 수익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까지 중형급 이상인 D세그먼트 이상의 판매 비중이 52.5%로 전년에 비해 4.7%포인트 하락한 상태다.

올 하반기에 신차 4종 이후 내년에는 주력 모델인 쏘렌토와 카니발이 신차 출시를 앞두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올해부터 V자 반응을 예고한 만큼 모델 다양화를 시작으로 수익성 향상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꾸준히 신차 출시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일 밝혔다. 서울 합정점, 고양 스타필드점, JDC제주면세점 등에 이은 네 번째 상설 매장이다.

세계적 보이그룹 리더가 작용해 품절 대란을 일으킨 '엘카 백팩' 등 인기 가방, 지갑 제품들을 시중가보다 10~1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국내외 소비자 발걸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롯데 인터넷 면세점에서 동일 제품을 동일한 할인 가격에 구

매할 수 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국내 최대이자 전 세계 3위 규모 면세점이다. 이번 입점을 기념해 모여댄은 매달 롯데면세점 매출의 1%만큼을 환경분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모여댄은 5일 올룸도에도 컨타뉴 매장을 오픈하고 4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효선 기자 hsbun@

SK이노 후원 사회적기업 롯데월드몰 면세점 입점

SK이노베이션이 후원하는 사회적기업 모여댄이 국내 1위 면세점에 입점했다.

모여댄은 지난달 30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8층에 컨티뉴(CONTINUE) 매장을 오픈했다고 2

한국지엠 '임원진 감금' 트라우마

사측 "임금협상 회사 밖에서" vs 노조 "안에서"

한국지엠 노사가 교섭장소 선정에 또다시 실패했다. 사측이 제시한 회사 외부의 장소를 노조 측이 거부하며 2019년 임금협상의 시작은 이번에도 미뤄졌다.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사측이 교섭장으로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고용복지센터 내 회의실을 제안한 것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앞서 한국지엠은 이 장소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추천받아 지난달 27일 노조 측에 제3의 교섭장소로 제안한 바 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27만 평부지의 회사에서 교섭장을 찾지 못하는 건 코미디"라며 "교섭장을 빌리는 것도, 조합원 없는 외부에서 교섭을 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교섭 장소 결정을 놓고 대립을 지속해오고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교섭 장소를 바꿔 달라는 사측과, 바꿀 수 없다는 노조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사측은 지난해 7월 기존 장소에서 교섭 중 임원진이 노조원들에게 감금당하는 일이 벌어지자 출구가 여럿 확보된 안전한 장소로 교섭장을 바꿔 달라고 요구해왔다.

대립은 중앙노동위원회 개입으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는 듯했다. 중노위는 지난달 24일 노조가 파업권 확보를 위해 제기한 노동쟁의신청에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며 "필요시 사내외 장소를 불문하고 새로운 장소를 선정해 조속히 교섭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사측에 인천북부지청 고용복지센터 회의실을 제공할 의사를 밝히고, 사측이 이를 수용하며 교섭 시작의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회사 내부에서 교섭장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며 노조가 반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 내부 제3의 장소에 관한 실무 논의를 사측이 요청해 오면 노조는 기꺼이 응할 것"이라 말했다. 한국지엠 관계자 역시 "안전이 확보된 장소에서 교섭을 진행하겠다는 임원진의 입장은 변함없다"면서도 "교섭 개시를 위해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창욱 기자 woogi@

두산, 협력사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 절반 지원

두산이 협력사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상생 실천에 나서고 있다.

두산은 1일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생산성본부와 함께 '㈜두산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4월에는 두산 각 사업 부문 120여 개 협력사와 '공정거래 및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하며 동반성장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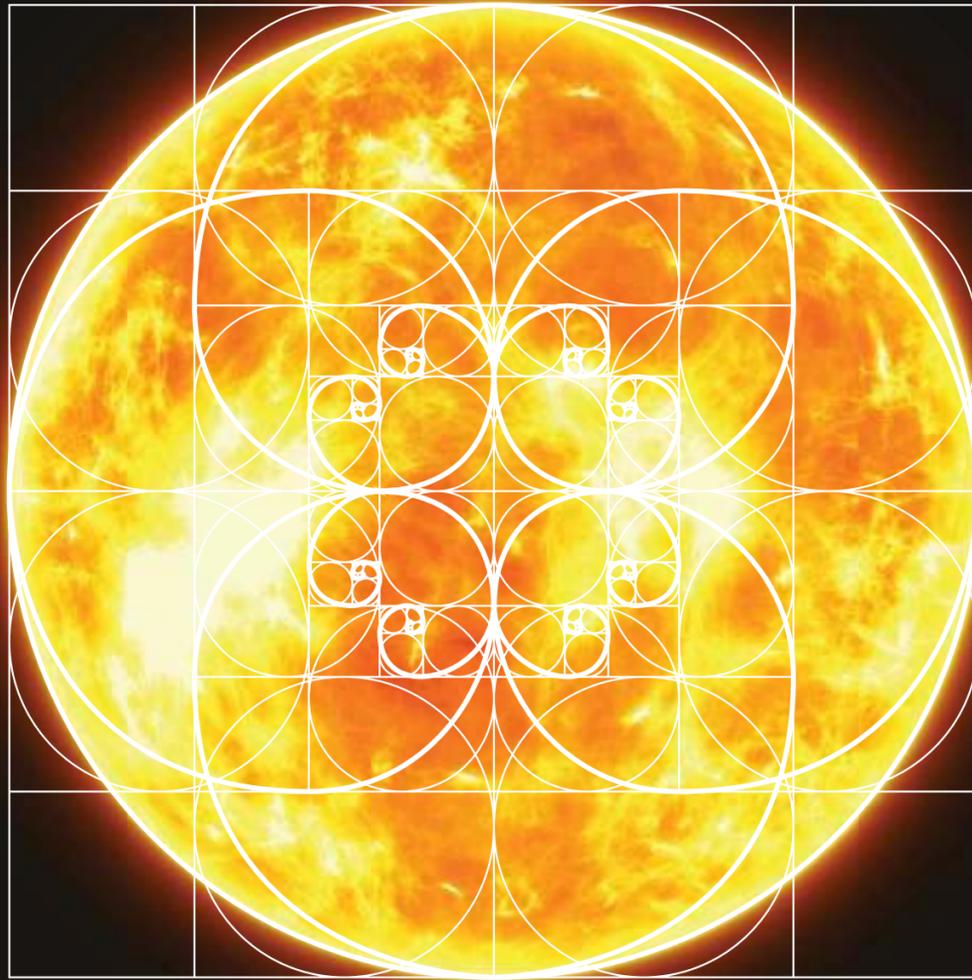
두산은 이번 협약에 따라, 10여 개 협력사 생산 현장에 로봇 자동화 공정, MES(제조실행시스템·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PLM(제품수명주기관리·Product Lifecycle Management) 등의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올해 안에

추진할 예정이다.

스마트공장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은 두산 50%, 정부가 30%를 각각 지원한다. 이어 17일엔 협력사가 부담할 비용 20% 중 절반을 경상남도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협약을 맺어 협력사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두산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사를 위해 생산성 혁신, 노무, 법무 관련 컨설팅 및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근로자 1인당 10만 원의 상생 격려금 및 건강검진비용 등도 지원하고 있다.

김기승 기자 kissong@



한화는 고갈되지 않는 단 두 가지 자원에 집중합니다 인간의 창의성 그리고 태양에너지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해
누군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함께 뜻을 모은다면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와 에너지빈곤문제
이 거대한 지구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화와 세계는 이미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UN의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맞춰
77억 명 누구나 더 쉽고 더 편리하게 태양광에너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앞선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며
지구촌 곳곳의 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오늘이 내일도 변함없이 계속되도록
지속가능한 친환경 솔루션을 연구합니다

동국제강, 미래 인재 키운다

장세욱 부회장 창립 65주년 맞아
멀티 스페셜리스트 인재상 주문

미래 먹거리·수익성 강화 집중
영업의 16분기 연속 흑자 행진



언급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는 신년회, 창립 기념일 행사 등 중요한 공식 행사에서 항상 “창의적 소통과 몰입으로 업무에 임하고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경쟁력을 키워 나가자”고 당부한다.

동국제강이 7일 예순다섯 번째 생일을 맞는다. 올해 역시 장세욱(사진) 부회장의 주도로 창립기념일 이틀 전인 5일 행사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장세욱 회장은 평소와 같이 서울 을지로 본사로 출근하지만 공식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임직원이 모여 65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어온 저력을 되짚어보고 100세가 될 때까지의 미래를 다짐한다. 또 모범사원 및 장기근속자 표창 수여와 함께 신입사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장 부회장은 이날 행사에서도 최근 수년간 강조해왔던 3개의 키워드 △창의적 소통 △몰입 △부국강병을 다시 한번

로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경쟁력을 키워 나가자”고 당부한다.

또 동국제강의 인재상인 새로운 업무에 도전해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멀티 스페셜리스트가 되어 달라고도 강조한다.

장 부회장의 경영 키워드에는 ‘미래 먹거리와 수익성’에 대한 고민이 내포돼 있다. 최근 수년간 재무구조개선약정 조기 졸업, 부채 비율 감소, 신용등급 상향 등 어려움을 잘 극복해 왔다면, 이제는 수익성 개선에 좀 더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동국제강은 지난해 7월 기존 사업본부 체제에서 기능별 조직 체제로 개편을 시행했다.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고 영업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또 몇 년 전부터 컬러강판, 봉형강 등 보다 잘할 수 있는 분야의 비중을 높여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에 변화를 준 점도 장 부회장의 아이디어다.

특히 동국제강만의 강점인 컬러강판을 중심으로 미국, 유럽, 동남아 등 해외시장 개척에도 힘쓰고 있다.

원가 절감과 수익성 중심의 영업 전략도 동국제강의 실적 개선을 이끌고 있다. 실제 봉형강 제품의 판매 단가 인상, 판매류 수요차 다변화 등의 전략을 펼친 결과 지난 1분기 수익성이 좋아졌다.

동국제강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34.5% 증가한 483억 원을 기록했다. 16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 또 적자가 지속됐던 당기순손실의 흑자전환에도 성공했다.

한편 동국제강의 모태는 장경호 회장이 1954년 7월 7일 서울 당산동에 설립한 철강공장이다. 한국전쟁 직후였던 당시 철제품 수요가 폭발했기 때문이다. 설립 이후 동국제강은 지금까지 65년간 철강 분야에만 집중하고 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국제선 여객 수 점유율 (단위: %, 1분기 기준)



제주항공, 국제선 점유율 두 자릿수 바짝

1분기 9.5% LCC 업계 선두
아시아나와 불과 5%p 격차

저비용 항공사(LCC) 업계 1위인 제주항공이 두 자릿수 국제선 점유율을 바라보고 있다.

2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올 1분기 국제선 점유율은 9.5%(외항사 포함)를 기록했다. 대한항공이 22%의 점유율을 기록했고 아시아나항공은 14.7%를 기록했다.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의 점유율 차이는 불과 5%p포인트다. 5년 전인 2014년 1분기에 18%p포인트 차이였던 것과 비교하면 급격히 간격을 좁힌 것이다.

제주항공은 LCC로 수익을 내기 위해 경영 시작부터 효율성을 유지했다. 전 기종을 단일 기종으로 운용함으로써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잡았다. 제주항공이 보유 중인 보잉 737-800NG는 100~200인승 항공기 가운데 현재 가장 인기 있는 기종이다. 항공업의 경우 항공기 종류가 다르면 조종사와 정비사도 항공기별로 별도 채용해야 한다. 제주항공은 이런 불편함을 없애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수익과 점유율을 모두 높였다.

최근 해외 여행객 수의 급증도 제주항공 점유율 상승에 이바지했다. 2015년 6143만 명이었던 국제선 여객은 작년엔 8500만 명이 돌파했다. 이 중 단거리 노선인 일본

과 동남아행 여행객 수가 급증했다. 지난해 일본 국제선 여객은 2100만 명을 넘어서 2016년보다 40%나 늘었다. 동남아도 지난해 3300만 명의 여객 실적을 기록해 2016년보다 32%가량 증가했다. 단거리 노선이 주를 이루는 제주항공이 여객 수와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앞으로 점유율 10%를 돌파하는 데는 걸림돌도 있다. 항공업계들이 앞다퉈 노선을 늘리면서 공항 슬롯이 포화해 노선 신설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슬롯이란 항공사가 특정 공항에 특정한 날짜와 시각에 출발·도착할 수 있도록 배정된 시간을 뜻한다. 이미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은 슬롯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지방 공항을 중심으로 노선을 늘려야 한다. 비수기의 탑승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지는 지방 공항에서 노선을 늘릴 경우 점유율 확대는 쉽지 않아 항공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하반기 중국 노선을 새로 취항한다면 점유율 상승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5월 2일 국토교통부가 배분한 중국 운수권 결과 제주항공은 9노선 주 35회를 받아, 티웨이항공과 함께 가장 많은 노선을 추가 확보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2분기 비수기에 일본 노선 등이 부진했지만 3분기 여름휴가와 추석 연휴에 승객들을 끌어모으면 제주항공의 국제선 점유율은 10% 돌파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기송 기자 kissong@

삼성 '라이브 최적화' 갤럭시A80 글로벌 출시

시리즈 첫 회전카메라 탑재

삼성전자가 갤럭시A80(사진)을 글로벌 출시하면서 중저가폰 라인업 갤럭시A가 '라이브 시대' 최적화된 스마트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장(사장)은 1일 삼성전자 글로벌 뉴스룸 기고문에서 “셀피의 시대”에서 “라이브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Z세대는 공유하고 콘텐츠를 시청하기 위해 모바일 기기를 산다”며 “Z세대가 향후 10년간 스마트폰 수요의 40%를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갤럭시A 시리즈는 최고의 화면, 최고의 카메라, 최고의 배터리를 제공, 사용자들이 라이브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



문에 삼성전자는 작년 9월 (갤럭시A를 강화하는) 모바일 전략의 변화를 발표했고, 1년이 지나지 않아 갤럭시A의 재탄생을 알리게 됐다”며 “갤럭시A는 필수 기능과 최신 기능을 아울러 초보 사용자나 합리적인 가격

으로 훌륭한 기능을 원하는 사용자 모두에게 좋은 옵션”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이달부터 유럽, 중동, 동남아, 중남미를 중심으로 갤럭시A80을 출시한다. 갤럭시A80은 현재까지 발표된 갤럭시A 제품군 중 가장 상위 모델로, 최초로 회전 카메라를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송영록 기자 syr@

롯데케미칼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롯데케미칼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집중적으로 포함한 ‘2018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2007년 발간을 시작한 롯데케미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매년 회사의 사업 및 사회, 환경적 성과와 목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내·외부 이해관계자 등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소통의 중요한 수

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발간된 보고서에 비해 미국 에탄크래커 및 EG공장 준공 등 신규 사업 성과와 테마별 사회공헌 활동을 비롯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또한 선도적으로 일·생활 균형 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 도입과 안전, 환경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투자 등 롯데케미칼의 지속가능 경영 성과에 대해 상세히 기술했다.

변호선 기자 hsbun@

Wenger®

Swiss Made

Watches

A Swiss Company since 1893

3 Year Warranty
Seaforce Chrono
01.0643.111

KOI COMPANY Co.,Ltd. 02)6403-2112



배우 안재현 씨가 tvN 예능프로그램 '강식당2'에서 해피콜 블렌더로 딸기·수박주스를 만들고 있다. 오른쪽은 '스페인 하숙'에 등장한 쿠첸의 'IR미작 클린가드'.

'강식당' 믹서기... '스페인하숙' 밥솥... 예능 속 뜨는 가전, 나도 써볼까

요리하는 리얼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방송에 노출된 주방 가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PPL 효과를 보는 주방 가전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PPL은 특정 기업의 협찬을 대가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해당 기업의 상품이나 브랜드 이미지를 소도구로 끼워 넣는 광고기법을 말한다.

소비자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으면서 상품을 자연스럽게 인지시킬 수 있고, 방송사에서는 제작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2월 발표한 '2018년 광고산업통계조사'에 따르면 2017년 국내 PPL 취급액은 1108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837억 원) 대비 32.5% 증가한 규모다.

해피콜은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tvN 예능프로그램 '강식당2'에 초고속 블렌더 '엑슬림S'를 제작 협찬했다. 지난달 28일 방송에서 배우 안재현 등이 해피콜 블렌더를 이용해 딸기·수박 주스를 갈아 멤버들과 나눠 마시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해피콜 관계자는 "방송 이후 '강식당2 믹서기', '강식당2 딸기·수박 주스 블렌더'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사고 있다"며 노출 효과에 관한 기대감을 표했다. 엑슬림S는 3만1000RPM의 저소음 BLDC 모터와 소음 방지 커버 등으로 조용한 분쇄 성능이 특징이다.

해피콜 초고속 블렌더 '엑슬림S' 쿠첸 밥솥 'IR미작 클린가드' 등 구입문의 급증... PPL효과 특출

쿠첸은 5월 중영한 tvN 예능프로그램 '스페인 하숙'에서 'IR미작 클린가드'를 제작 협찬했다. '스페인 하숙'은 배우 차승원과 유해진, 모델 배정남이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자길에서 알베르케(하숙집)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방송에서 쿠첸의 IR미작 클린가드는 출연자들이 밥을 푸는 장면을 비롯해 알베르케의 주방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됐다. 이 제품은 쿠첸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IR센서, 클린가드, 냉동보관 기능이 적용된 밥솥이다.

쿠첸 관계자는 "방송이 나간 뒤 매장에서 '차승원이 쓴 밥솥 어디 있냐'며 해당 제품을 찾는 고객들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다. IR미작 클린가드는 지난달부터 tvN에서 방영 중인 '고교급식왕'에도 제작 협찬으로 등장한다. 고교급식왕은 요리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들이 백종원 씨의 도움으로 급식을 완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정식 PPL은 아니지만, 우연히 제품이 노출돼 혜택을 본 업체도 있다. 휴롬과 리립이 대표적이다. 올해 3월 중영한 vN 예능프로그램 '커피프렌즈'에서 휴롬 원액기 '휴롬 디바'의 블랙 색상이 등장했다. 휴롬 관계자에 따르면 휴롬 디바 제품 중 블랙 색상은 레드, 아이보리 등의 컬러보다 인기가 없었다. 그런데 프로그램 방영 뒤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방송이 한창이었던 1~2월에 휴롬은 총 10회 이상 휴롬핑을 진행했는데 이때 블랙 색상이 완판됐다. 동시에 방송 이전인 지난해 말 대비 휴롬 디바의 월 판매량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역대 수준인 PPL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노출 효과를 제대로 누린 셈이다.

리립 식품건조기도 효과를 봤다. 리립 관계자는 "방송에서 나온 감귤 칩 등 레시피가 SNS에 활발하게 공유되면서 리립 식품건조기도 같이 언급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지만 기자 aaaa3469@

3D 가상피팅부터 실손보험 청구까지 무인결제 '키오스크'의 진화

AR 기반 3D 가상피팅 솔루션 '에프엑스미러' 패션몰 새변화 대학교 구내식당·종합병원 등 간편함 앞세워 활용범위 확대

커피숍과 병원, 패스트푸드점을 비롯해 학교와 옷가게에도 '키오스크' 열풍이 불고 있다.

초창기에는 키오스크를 단순히 식당이나 무인 독서실에서 메뉴와 자리를 고를 때 사용했다면 최근에는 대학교, 병원, 옷가게, 캠핑장 등 일상의 다양한 공간에서 마주하게 된다.

2일 키오스크 업계에 따르면 국내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전문 기업 에프엑스기어(FXGear)는 AR 기반 3D 가상 피팅 솔루션 '에프엑스미러(FXMirror)'로 패션몰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더 정확한 의상 피팅과 쇼핑을 가능케 하는 '몰리 기반 피팅 시뮬레이션' 기능을 새롭게 개발, 의류패션 시장에 한창 도입되고 있다. 피팅 몰입감을 높이고 실제 착용한 옷의 제한 없이 가상 피팅이 가능한 기술이다. 사용자의 신체 주요 치수 측정을 통해 3D 아바타를 생성한 뒤 해당 체형에 적합한 의상의 사이즈를 XS부터 3XL까지 추천한다. 사용자가 사이즈를 선택하면 브랜드별 의상 사이즈 조건표에 따라 해당 의상의 사이즈별 3D 의상이 자동 생성돼 쉽고 빠르게 사실적인 가상 피팅이 가능하다.

에프엑스기어는 이미 롯데피트인 동대문점과 대구가톨릭대 등에 설치됐으며, 대구국제뷰티엑스포와 상하이 메이크업 전시회 등에 참가하며 기술력을 대내외에 알리고 있다.

스마트캐스트는 한국산업기술대의 푸드코트 등 교내 5곳에 키오스크 등 총 10여 개의 장비를 설치했다. 무인결제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한국기술대학교 내 식당에서는 일 평균 1500명 이상의 주문을 보다 빠른 시간에 처리할 수 있으며 사용자 역시 대기 시간



서울대공원 캠핑장에 설치된 투디키오스크. 사진제공 투디키오스크

을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테이블에서 직접 주문하는 '테이블 키오스크'도 인기를 얻고 있다.

병원 진료 후 번거로웠던 실손보험료 청구를 키오스크로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 KT는 키오스크 업체 엔에스스마트, KB손해보험과 합작으로 실손보험 다이렉트 청구 플랫폼을 선보였다. 서울 동작구 중앙대병원에 18대의 보험 청구 키오스크가 설치됐으며, 진료를 마친 환자는 키오스크를 통해 실손보험 서류를 전산으로 간편하게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스마트오더 스타트업 투디엠은 QR 스마트오더 서비스와 연동되는 2세대 키오스크 투디키오스크를 서울대공원 캠핑장에 설치했다. 투디키오스크는 32인치 IPS 디스플레이에 IC카드 결제기와 프린터를 내장했으며, 키오스크와 모바일 QR 스마트오더의 주문·결제 정보가 관리자에게 통합 전송된다.

키오스크 업계 관계자는 "무인결제 시스템은 주문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푸드코트나 구내식당 같은 대형 매장에서 특히 효과적"이라며 "키오스크의 간편함에 앞으로 사용 범위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

LG U+, 5G 클라우드 VR게임 선보인다

5G 네트워크 스트리밍으로 VR게임 공간 제약 없이 즐겨 카카오펀치·롯데월드와 협력 전국 90여곳에 체험존 설치

LG유플러스가 5G 기반의 클라우드 VR게임을 선보인다.

2일 LG유플러스는 서울 용산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VR게임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밝혔다. VR게임을 즐기기 위해 구비해야 하는 장비 등을 최소화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올해 말까지 5G 기반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인프라 확대와 콘텐츠 소싱 및 제작 등을 추진한다. 또 VR게임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카카오펀치, 롯데월드와 전략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클라우드 VR게임 체험 확대를 위해 이달부터 서울 용산과 마곡사옥, 전국 90여 곳의 유통매장에 5G클라우드 VR 게임 체험존을 설치한다.

우선 LG유플러스가 추진하는 클라우드 VR게임은 게임 실행을 위해 PC 및 게임 구동, 케이블 연결과 디바이스 설치 등의 복잡한 과정을 없앴다. 실제 게임은 클라우드 서버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5G 네트워크가 구축된 곳이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



LG유플러스 모델들이 5G 클라우드 VR게임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유플러스

고 고사양의 VR게임을 스트리밍으로 즐길 수 있다.

VR게임은 HMD 단말 성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하지만 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능해지면 단말 성능에 구애받지 않고 저사양의 기기에서도 고품질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고성능 장비를 구매하지 않아도 무선 HMD만으로 고사양의 실감형 게임을 스트리밍으로 즐길 수 있어 공간 제약 없이 새로운 형태의 VR 게임을 선보이는 것이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고객에게 VR게임을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디지털 게임플랫폼

'스팀'의 PC VR게임과 인기 VR콘솔 게임 10여 종을 1차로 제공한다. 이후 내달 20종 이상으로 확대해 서비스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규모를 늘린다. 또 롯데월드, 카카오펀치와 기술 콘텐츠 제휴를 통해 다양한 연령층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장르의 VR콘텐츠를 개발·확보한다.

연말까지는 5G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5G 초저지연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VR 게임 등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전국 90여 개의 직영점에 5G 클라우드 VR게임 체험존을 설치한다.

조성준 기자 tiatio@

SKT, 사내 벤처 프로그램에 구성원 펀딩 도입

사업모델 구체화에 1억 지원 해외 현지 멘토링 기회 제공

SK텔레콤은 사내 벤처 프로그램 '스타트넷'을 개편한다고 2일 밝혔다. 전 구성원이 아이디어에 직접 투자하고 실제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내 기업가 육성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SK텔레콤은 구성원 펀딩 제도, 사업모델 구체화에 총 1억 원 지원, 해외 현지 멘토링 기회 제공 등 지원 규모를 대폭 강화한 '스타트넷 2019'를 선보인다. 스타트넷은 지난해 시작한 사내 벤처 프로그램이다.

스타트넷 2019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클라우드 펀딩 방식을 도입한 구성원 펀딩 제도다. 구성원 펀딩은 클라우드 펀딩처럼 사업화에 성공하면 아이디어에 투자한 구성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는 개념이다.

구성원 펀딩제도는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스타트넷

에 제안된 아이디어들이 사업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SK텔레콤은 스타트업처럼 자유롭게 토론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문화를 구성원들에게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구성원 펀딩은 3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전 구성원에게 스타트넷 전용 가상 투자금이 지급된다. 가상 투자금을 받은 구성원은 사업화하고 싶은 아이디어에 원하는 액수만큼 투자하게 된다. 이후 투자한 아이디어가 심사 과정을 거쳐 사업화에 성공하면 투자자들은 500만 원 상당의 리워드를 투자 비율에 따라 나눠 갖게 된다.

문현희 SK텔레콤 기업문화센터장은 "스타트넷 2019는 전 구성원이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혁신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SK텔레콤 구성원 누구나 제안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5G시대를 선도할 사내 기업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날개 단 펫푸드...



‘냥식’이 이끈다

〈냥방이+간식〉

지난해 반려묘 사료 시장 3200억 수준... 전년비 14% ↑
간식 시장은 523억 규모... 3년 만에 6.7배 급성장 주목
퓨리나 퓨레키스 등 다양한 간식 출시... 시장 선점 나서

올해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1조 80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반려묘 간식이 ‘펫코노미’의 신성장동력으로 꼽히고 있다.

펫코노미란 애완동물(pet)과 경제(economy)의 합성어로 반려동물과 관련한 시장을 뜻한다. 정부는 2020년 시장규모가 3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며, 조사기관에 따라 시장규모를 6조 원까지 내다보기도 한다.

지난해 1조 원 규모의 펫푸드 시장에서 반려견 사료는 약 6400억 원, 반려묘 사료는 약 3200억 원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유로모니터 조사). 각각 전년 대비 3.8%, 14% 증가한 수치다. 2024년에는 반려견 사료 시장이 6980억 원, 반려묘 사료 시장이 4500억 원으로 커질 것이라고 유로모니터는 예측했다. 연평균 시장 성장률은 반려견 1%, 반려묘 5%가량이다.

실제로 잡식인 개에 비해 육식동물인

고양이의 먹거리는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게 책정된다. 또 반려동물 시장에서도 최근 몇 년 새 개보다 고양이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반려묘 사료 시장이 반려견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반려묘를 위한 간식 시장은 지난해 523억 원 규모로 78억 원을 기록한 2015년 대비 3년 새 약 6.7배나 커져 눈길을 끈다.

이에 펫푸드 업계에서도 빠른 시장 선점을 위해 쿠키부터 액상형까지 다양한 종류의 간식을 앞다퉀 선보이고 있다.

네슬레 퓨리나의 프리미엄 습식 캣푸드 브랜드 팬시피스트의 ‘퓨레키스’는 퓨레에 플레이크 알갱이가 들어 있는 스틱형 액상 간식이다. ‘퓨레키스’는 맛에 민감한 반려묘를 겨냥해 생닭고기와 참치의 순살기로 만든 퓨레 베이스에 단호박, 닭고기 등 원료의 질감을 느낄 수 있는 플레이크를 넣었다. 지난해 출시된 이 제품은 액상형 간식의 인기에 힘입어 6월 한 달간 매출이

반려동물 사료 시장 규모 (단위: 억 원)



왼쪽부터 드림펫푸드의 런치보노도, 와그의 퍼얼, 네슬레 퓨리나 팬시피스트의 퓨레키스, 뉴트리플랜의 고메트릿

전월 대비 70% 늘었으며, 이 같은 소비자 호응에 발맞춰 대용량(20개입) 제품과 블루베리 맛을 새롭게 출시할 예정이다.

팬시피스트 최지혜 브랜드 매니저는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반려묘를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간식 구매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며 “당분간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짜 먹는 형태의 ‘퓨레키스’를 비롯해 점차 다양한 제형의 간식 제품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원 F&B의 펫푸드 전문 브랜드 ‘뉴트리플랜’은 핏감용 참치를 넣어 만든 간식 ‘뉴트리플랜 고메트릿’ 2종(참치 미니 스틱 캣, 참치 치즈벨 캣)을 반려묘용으로 선보였다. 이 제품은 신선한 참치 생육을 베이스로 연어오일, 참치지속농축액 등의 오메가3 지방산과 크랜베리, 생치즈 등을 넣었다.

풀무원건강생활의 펫푸드 브랜드 ‘아미오’는 반려묘를 위한 ‘아미오 그레인 프리’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육식을 통해 영양을 섭취하는 고양이의 특성에 맞춰 육류 함량을 80%로 높은 프리미엄 제품이다.

이 밖에 와그의 고양이 쿠키 ‘퍼얼’은 치킨, 리버(닭고기), 헤어볼 컨트롤 3종으로 출시됐다. 칼슘과 타우린이 풍부한 새우 분말과 향산화 성분이 가득한 로즈마리, 비타민, 미네랄 등이 함유돼 있다. 드림펫푸드의 ‘런치 보노도’는 닭가슴살과 참치 통살로 조리한 간식이다. 가쓰오부시맛, 오리지널 참치맛 총 4종으로 구성됐다. 고양이에게 필수적인 타우린은 물론 히스티딘도 함유해 다이어트와 면역력 증진, 각종 질병 예방을 돕는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이마트 피코크 저칼로리 아이스크림 ‘올로우(Yelow)’ 5종. 사진제공 이마트

아이스크림 ‘역성장’ PB로 돌파구 찾는다

홈플러스 ‘뽕다방...’ 3종 등 이색 상품 출시하며 차별화

아이스크림 시장이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유통업계에서는 아이스크림PB(자체브랜드) 제품을 출시해 돌파구를 찾고 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업체들은 이색적인 상품 출시를 통해 소비자들의 발길을 매장으로 돌리겠다는 전략이다.

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국내 아이스크림 소매시장 매출은 2015년 2조184억 원에서 2017년 1조6837억 원으로 2년 만에 16.6%나 줄어 들었다. 이는 출산율 감소로 인해 아이스크림의 주 고객층인 어린이 인구가 감소하는 데다 아이스크림을 대체할 디저트 시장의 성장세가 맞물린 결과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는 아이스크림 매출 공백을 메꾸기 위해 PB상품 출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홈플러스는 최근 ‘뽕다방 아이스크림’ 3종을 단독 출시했다. 이 상품은 홈플러스와 뽕다방, 롯데푸드가 손잡고 여름철 뽕다방에서 많이 팔리는 인기 음료들을 474ml 파인트(pint) 컵 형태의 아이스크림으로 리뉴얼한 제품이다.

지난달 23일 이마트는 일반 아이스크림 대비 칼로리가 1/4 수준인 피코크 저칼로리 아이스크림 ‘올로우(Yelow)’ 5종(녹차, 딸기, 민트초코칩, 초코, 바닐라)을 내놨다. 용량은 473ml 파인트 규격이며 가격은 개당 5980원으로 경쟁 상품 대비 약 25% 저렴하다. 특히 시중에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473ml 파인트 1컵의 칼로리가 1000칼로리(kcal) 내외인 것에 비해 올로우는 1컵당 칼로리가 220~265kcal에 불과하다.

PB 아이스크림은 편의점에서도 앞다퉀 내놓는 추세다. 세븐일레븐은 롯데푸드와 함께 스테디셀러 음료인 2%아쿠아, 2%복숭아를 하절기 수요가 높은 펜슬류(일명 쭈쭈바류) 및 컵류 상품으로 재탄생시켜 단독으로 선보였다.

이마트24 역시 ‘이천쌀콘’, ‘바나나 에반하나’ 등 PL(유통업체 자체브랜드) 아이스크림 2종을 내놨다. ‘이천쌀콘’은 이천 지역 특산물인 쌀을 소재로 만든 콘아이스크림으로, 이마트24가 편의점 업계 단독으로 선보였다. 특히 이 제품은 SNS에서 입소문을 타며 지난달 18일 기준 판매량이 60만 개를 넘어섰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PB 전략은 차별화의 일환”이라며 “특히 편의점의 경우 주 타깃인 젊은 층을 겨냥해 재미 있는 콘셉트로 매장에 찾아오게 하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면세점 호황에도 마케팅 힘주는 이유

“개별 관광객 매출 비중 늘려라”

중당국 불법 구매대행 단속에 보따리상 의존도 줄이기 나서
관광 특화 제휴카드 등 공들여



롯데면세점은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그룹의 타오바오 글로벌과 함께 ‘왕홍 라이브쇼 페스티벌’을 열었다. 사진제공 롯데면세점

면세점 업계가 외국인 관광객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시내 면세점들이 중국 보따리상 덕에 매출은 호황이지만, 이들의 불법 구매대행을 단속하는 전자상거래법 시행으로 보따리상 의존도를 낮추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따리상 의존도를 줄이고 일반 관광객 소비를 늘리는 것이 면세점 업계의 과제로 떠올랐지만, 관광객 소비는 갈수록 줄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외국인 관광객의 평균 지출경비는 4분기 연속 줄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1% 줄어든 1268달러(약 150만 원)로 집계됐다. 이에 면세점 업계는 프로모션 진행, 콘텐츠 확대, 할인 혜택 등 개별 관광객 유치에 공들이고 있다.

신세계면세점은 중국 흥업은행과 손잡고 한국 쇼핑·관광 혜택이 담긴 ‘디스커버 신세계’ 신용카드 4종을 이달 중국 전역에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흥업은행은 중국 내 총 2032개의 지점을 보유한 대형 은행 중 하나로, 신세계는 이번 협력이 중화권 고객 유치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스커버 신세계’는 중국 금융권 최초로 한국 관광이 특화된 서비스를 탑재했다. S·A·B·C등급 총 4종으로 출시해 다양한 소비층의 중화권 고객을 공략한다. S등급과 A등급 회원에게는 최대 20%의 신세계면세점 전 지점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블랙 멤버십이 발급되고, 명동점과 강남점의 블랙 VIP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개별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일반 관광객이 좋아하는 아이돌 팬미팅을 기획하고, 동남아 관광객

을 위한 할랄푸드 상품을 구성하는 등 K패션·K뷰티·K푸드 등 상품을 다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면세점은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그룹의 타오바오 글로벌과 손잡고 1일 명동본점에서 ‘왕홍 라이브쇼 페스티벌’을 열었다. ‘왕홍(網紅)’ 500명을 초청해 K뷰티 브랜드를 소개하는 이 행사에는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설화수, 아이오펜, 라네즈를 비롯해 클리오, 윌라주 등 토종 화장품 브랜드 23개가 참여했다. 롯데면세점 측은 “앞으로도 면세점과 화장품 브랜드가 K뷰티의 차별화된 경쟁력과 발전 가능성을 보여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라면세점 역시 에스티로더 그룹 계열의 글로벌 뷰티 브랜드 ‘클리닉(CLINIQUE)’와 손잡고 고객 초청 팝업 행사를 열고,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쇼핑 콘텐츠를 제공했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호황이 보따리 상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보따리상 규제에 따른 매출 불확실성도 커졌다”며 “개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할인 혜택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 콘텐츠 제공, 관광객이 좋아하는 브랜드를 상품화해 알리는 역할 등이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박미선 기자 only@



명품 포도 ‘샤인머스켓’

현대백화점은 여름 정기 세일 기간을 맞아 7일까지 전국 15개 점포에서 현대 식품관 여름 특별기획 ‘여름에 맞달라’를 열고 ‘포도계의 명품’으로 불리는 ‘샤인머스켓’을 당일 판매가보다 2000원 할인 판매한다. 껍질째 씹어 먹는 씨 없는 청포도인 샤인머스켓은 일반 캠벨 포도보다 4~5도 높은 18브릭스(Brix)의 고당도 포도로, 달콤한 맛과 맛이 난다고 해 ‘망고 포도’라는 별명이 붙었다.

현대백화점은 여름 정기 세일 기간을 맞아 7일까지 전국 15개 점포에서 현대 식품관 여름 특별기획 ‘여름에 맞달라’를 열고 ‘포도계의 명품’으로 불리는 ‘샤인머스켓’을 당일 판매가보다 2000원 할인 판매한다. 껍질째 씹어 먹는 씨 없는 청포도인 샤인머스켓은 일반 캠벨 포도보다 4~5도 높은 18브릭스(Brix)의 고당도 포도로, 달콤한 맛과 맛이 난다고 해 ‘망고 포도’라는 별명이 붙었다. 사진제공 현대백화점

‘스타필드 시티 부천’ 지역민 우선 채용

9월 오픈 앞두고 채용박람회 43개 협력사 1500명 채용 전망

9월 ‘스타필드 시티 부천(사진)’ 오픈을 앞두고 있는 신세계 프라퍼티가 지역민 우선 채용을 통해 지역 상생에 나선다.

신세계 프라퍼티는 4일 부천 체육관에서 부천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과 함께 ‘스타필드 시티 부천 상생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창고형 할인매장 트레이더스를 비롯해 일렉트로마트, 토이킹덤, 메가박스 등 쇼핑, 여가 시설뿐 아니라 유니클로, H&M 등 140여 개의 유명 브랜드를 비롯해 별마당키즈, 옥상정원, 팟파쿠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세계 프라퍼티는 ‘스타필드 시티 부천’이 문을 열면 모두 1500여 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보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신세계인터내셔널, 스타벅스 등 신세계 그룹사는 물론, 메가박스, 유니클로, 나이키 등 스타필드 시티 부천에 입점하는 43개 협력사가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



한다는 방침이다.

오전 10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상생 채용 박람회는 참여기업 부스 별로 인사, 채용 담당자들이 상주하여 채용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위수연 신세계프라퍼티 상무는 “스타필드 시티 부천은 지역민이 함께 즐기고, 지역 상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지역 상생형 쇼핑몰이 될 것”이라며, “이번 채용 박람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기회를 통해 지역 주민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제약·바이오 약재, IPO 시장으로 불똥 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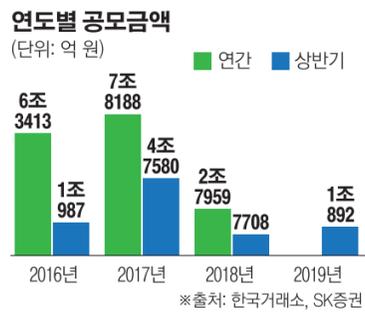
예기치 못한 약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그 여파에 코스닥 시장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하반기 IPO(기업공개) 시장 위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IPO를 통해 상장한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2곳, 코스닥 16곳 등 18개 기업(이전상장 및 SPAC 제외)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20곳)보다 수는 줄었지만, 전체 공모 규모는 1조948억원으로 40.34% 증가했다. 천보, 에코프로비엠, 지노믹트리, 현대오토에버, SNK 등 공모 금액이 1000억 원을 상회하는 중견급 기업들이 대거 등장했기 때문이다.

티움바이오·SCM생명과학·아벨리노랩·메드팩토 상장 준비 '하반기 IPO 최대어'로 꼽히던 SK바이오팜은 상장 일정 연기 "바이오기업 검증과정 엄격해져... 하반기 IPO 시장 위축 우려"

전통적으로 하반기에 상장기업이 몰리는 현상을 보여왔지만 최근의 전망은 다소 부정적이다. 진원지는 바이오다. 인보사 사태와 임상 약재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크게 약화되자 상장 시기를 다시 검토하는 기업이 나타나고 있다. 당장 하반기 IPO 최대어로 꼽히던 SK바이오팜이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SK바이오팜은 연내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추

진해왔지만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세노바메이트의 미국 판매 허가를 확인한 뒤 공모에 나서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SK바이오팜의 연내 상장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SK바이오팜 외에도 티움바이오, SCM생명과학, 아벨리노랩, 메드팩토 등 바이오 기업들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들 역시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코스닥 시장



상장에 나선 이들 기업은 최근 일련의 사태로 바이오기업에 대한 검증이 보다 깎간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코스닥 업계 관계자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심사기관에서는 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수밖에 없다"면서 "기특이나 최근 기술성 평가를 둘러싼 허점까지 제기된 만큼 보다 검증 과정이 엄격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바이오 산업에 대해 하반기부터 기술력 검증에 보다 많은 시간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계획 중인 기술 성장 기업들의 최종 상장 완료 시점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거래소는 바이오기업 상장과 관련해 "바이오 기업이라고 추가적인 검증 작업에 나서거나 하는 경우는 없다"며 "원칙과 절차에 맞춰 상장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코스피 예상밴드 1950~2350... 박스권 장세 이어질 것”

리서치센터장 4인이 보는 하반기 증시 전망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주요 리서치센터장들은 하반기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반기 핵심 변수로는 미·중 무역분쟁의 향방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통화 완화책이 꼽혔다. 코스피 예상밴드 최저점은 1950선, 최상단은 2350선이다. 2일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볼스홀에서 열린 '제1회 증시 콘서트: 2019 하반기 증시 대전망' 세미나에서 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하반기 국내 주식시장은 △미중 무역분쟁 타결 여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 △중국의 추가 부양정책 강도 △기업실적 바닥 통과 여부에 좌우될 것"이라며 "연내 무역협상 타결을 기본 시나리오로 코스피 상단을

2350선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미국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무역분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50bp(1bp=0.01%) 수준의 보험 차원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며 "시장에서는 내년까지 100bp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이는 보험 차원이 아니라 침체된 경기를 방어하기 위한 금리 인하라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오 센터장은 "미국이 하반기 이후 대선 사이클에 진입하는 점, 중국의 경우 IT 관련 제조업 기반이 일수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연내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불확실성은 있지만, 시장에서도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해외증시를 전망한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미중 무

하반기 코스피 예상밴드

| 증권사명 | 삼성증권 | 하나금융투자 | SK증권 | NH투자증권 |
|----------|--------------------|--------------------|--------------------|--------------------|
| 리서치센터장명 | 오현석 | 조용준 | 최석원 | 이창목 |
| 코스피 예상밴드 | 최저 1950 최고 2350 | 최저 2000 최고 2350 | 최저 2050 최고 2380 | 최저 1950 최고 2350 |

'미중 무역분쟁 향방' 핵심 변수 주요국 통화 완화책도 예의주시 글로벌경기 전망은 다소 엇갈려

역분쟁의 연내 타결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조 센터장은 "부분 타결은 가능할지 몰라도 무역협상 타결 가능성은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다만 협상을 재개했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우려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글로벌 트렌드 속

에 국가별로 자본시장 성장세가 차별화될 전망"이라며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가운데 5G,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나스닥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장기적인 금리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하반기에도 세계경제 둔화, 팽창적 통화정책 등으로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글로벌 경제의 저금리 의존이 장기화되면 금리가 쉽게 오르지 못하고, 낮은 금리로 돈을 써서 살아남는 '좀비기업'이 늘어 구조조정이 어려워지

는 현상이 이어질 전망"고 분석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의견은 조금씩 엇갈렸다. 오현석 센터장은 "현재 글로벌 경제가 침체로 가고 있느냐에 대해 논쟁이 많은 상황이지만 소프트웨어(경착륙)와 침체는 구분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올해와 내년 2%대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경기는 둔화될 수 있지만, 리세션을 거론하기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반면 이창목 NH투자증권 센터장은 "하반기 글로벌 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에 따른 하강 요인과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 기조에 따른 상승요인 공존으로 뚜렷한 변화는 없는 흐름일 것"이라며 "경기 침체는 언젠가 온다고 가정할 경우 실업률 추이 등을 봤을 때 미국 경제가 2021년 초에 경기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www.douzone.com

인공지능 ERP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다!

더존 iCUBE가 더욱 스마트해졌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기계학습 방법론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

기업의 업무는 이제 국내 유일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에 맡기십시오.

회사 밖에서 급한 임무가 생기면 어떡하지?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도 실시간 업무 진행이 가능한 스마트워크

회계처리 쉬운 방법 없을까?
거래내역 자동수집, 자동분계,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데이터 오류까지 자동 검증

믿을 만한 거래처인가?
거래처 신용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우리 회사 경영 상황을 분석할 수 있을까?
ERP에 축적된 데이터를 기업에서 필요한 형태로 수정할 수 있는 분석을 제공

기업용 ERP

- 회계관리, 인사·급여관리, 영업관리
- 무역관리, 구매·재재관리, 생산관리
- 와주관리, 서비스관리, 경영정보관리
- 공시현황관리

더존 iCUBE
더존 iCUBE
Cloud Edition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용 ERP

- 예산관리, 자산관리, 후원자관리
- 회계관리, 인사·급여관리, 경영정보관리
- 영업관리, 구매·재재관리, 생산관리

더존 iCUBE G20
더존 iCUBE G20
Cloud Edition

더존 ERP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문의 1688-5000

대장솔루션 “350억 CB 발행 재추진”

반기 결산 8월 예정... ‘표면이자율 0%’ 무이자로 자금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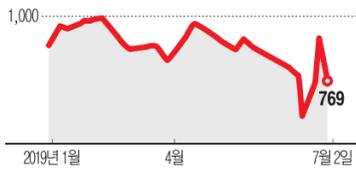
대장솔루션이 최근 철회 공시한 350억 원 규모 전환사채(CB) 발행을 재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투자 여부 결정 시점은 8월 중순이 될 전망이다.

2일 대장솔루션과 CB발행 대상자였던 지마이티자산운용 등에 따르면 현재 투자자와 합의에 따라 발행 계획을 철회하고 재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발행 철회 이유는 시장 상황과 발행조건 등으로 알려졌다.

지마이티자산운용 관계자는 “완전 철회는 아니다”며 “시장 상황과 실적 추이 등을 보고 반기 실적이 결산 되는 8월 중에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처음 투자를 제안한 것은 투자자 쪽으로 회사의 장래성을 긍정적으로 봤다는 설명이다.

해당 투자가 다시 진행될 경우 상당액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대장솔루션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약 30억 원을 금융원가로 지출해왔다. 대출처는 부산은행과 기업은행 등으로 토지와 건물 등을 담보로 잡고 약 590억 원을 차입했다. 이자율은 2.99~9.50%다.

대장솔루션 주가 (단위: 원)



철회한 CB 발행 조건은 표면이자율 0%에 만기수익률 4.5%다. 전량 전환행사권이 행사될 경우 무이자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업계에 따르면 대장솔루션은 주강품 및 관련 제품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 종속기업인 크리오스가 초저온시스템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기업으로 남북 경제 협력에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이다.

대장솔루션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이 원만하게 끝나 시장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본다”며 “회사 실적도 1분기 흑자 전환한 데 이어 흑자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기영 기자 pgy@

신용등급도... 주가도... 똑 똑 CJ CGV, 터키發 악재에 이중고

한신평·한기평 등 ‘부정적’... 주가, 52주 신저가 수준으로 2016년 터키법인 인수 후 재무안정성 하락 “자본확충 필요”

CJ CGV가 터키 법인발 악재 후유증이 길어지면서 신용도·주가 하락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실적 저하가 재무안정성을 훼손하면서 국내 주요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평가가 잇따라 ‘부정적’으로 선화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1일 CJ CGV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안정적’에서 ‘A+·부정적’으로 변경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한국기업평가가 무보증사채 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이를 뒤에는 나이스신용평가 역시 장기신용등급을 ‘A+·Stable’에서 ‘A+·Negative’로 변경했다. 주가 역시 작년 5월부터 우하향 곡선을 그리며 52주 신저가 수준으로 하락한 상태다.

신용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변경한 주

요 배경은 수익구조의 약화를 비롯해 터키 영화관 사업 투자 이후 발생한 재무안정성 저하다. CJ CGV는 별도기준 영업이익률이 2015년 8%에서 지난해 3.7%로 떨어졌다. 해외사업장은 공격적인 출점에 따른 초기 영업적자를 극복하고 2015년 이후 흑자로 전환하면서 별도기준 수익성 저하를 보완하고 있다. 하지만 연결기준 수익성 역시 점진적으로는 저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재무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CJ CGV는 2016년 터키 법인 인수 당시 FI(재무적투자자, 메리츠증권)와 TRS(총수익스왑) 계약을 체결했다. 2018년 들어 발생한 터키의 경제위기로 리라화 환율이 급락하며 1776억 원의 TRS 평가손실, 884억 원의 영업권 손상차손을 인식하며 연결기준 1885억 원의 세전적자를 기록했다.

나이스신용평가 최경희 선임연구원은 “회사는 평가손실 및 금융비용 증가 등에 따른 당기순손실 누적 등으로 1분기 말 부

CJ CGV 주가 (단위: 원)



채비율이 678.5%를 기록하는 등 재무안정성이 과거 대비 크게 저하됐다”며 “특히 터키 법인 인수 시 출자한 FI 투자금 중 일부는 부채 성격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 재무안정성은 지표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판단돼 재무 부담이 과중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주요 신평사들은 CJ CGV의 영업수익성이 중단기적으로 크게 개선되기 어렵고, 과거 대비 재무안정성이 저하된 만큼 자본확충을 포함한 재무부담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대해 CJ CGV 관계자는 “자본 확충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고민을 해왔고 조만간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밝히기는 어려우나 증자 쪽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똑똑 나가도 될까요?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세상인가요?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나요?

깨끗한 집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나요?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어린이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하겠습니다

아동을 먼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주거정책이 어린이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아동 주거권 증진을 위한 '집다운 집으로' 캠페인의 제도 개선 촉구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1588-1940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함께 해주세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셀리드, 전립선암·흑색종 치료백신 임상 추진

하반기 1상 진입 목표

셀리드가 하반기 전립선암 등을 치료 대상으로 하는 BVAC-P의 임상 1상을 진행한다. 또 흑색종 등을 타깃으로 하는 BVAC-M의 임상 1상도 추진한다.

2일 회사에 따르면 셀리드는 항암면역 치료백신 BVAC-P와 BVAC-M의 임상 1상을 준비 중으로, 하반기 시험을 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유 파이프라인에 대한 제품 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암종에 관한 적응증 확대와 기존 항암면역치료제와의 병용투여 등의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주목할 점은 기존 주력 항암면역치료백신인 BVAC-C를 중심으로 임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셀리드의 메인 백신 파이프라인은 BVAC-C와 BVAC-Neo다. BVAC-C는 자궁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2a를, BVAC-Neo는 개인 맞춤형 항암면역치료백신으로 현재 비임상 시험을 진행 중이다. BVAC-Neo의 경

우, 올해 중으로 연구자 임상 1상 진입이 목표다.

BVAC-C가 미국 네오이뮤네테크(NeoImmuneTech)에 미국 내 개발·판매 권리를 기술 이전한 가운데, 여타 파이프라인 임상 진행은 각 개발 제품에 관한 임상 시험 단계별 글로벌 제약사 및 바이오기업과 이상개발, 기술협력, 판권이전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셀리드는 BVAC-C의 성과를 기반으로 자사 플랫폼 기술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셀리드의 핵심 기술은 셀리백스 플랫폼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셀리백스는 기존 출시된 면역치료제보다 다양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즉 셀리백스 플랫폼 기술은 항원만 변경해 신규 파이프라인을 지속 해서 추가할 수 있다.

셀리드는 셀리백스를 통해 앞서 언급한 파이프라인을 포함한 5종의 항암면역치료백신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적응증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고종민 기자 kim@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19년 7월 2일 18:00, KST)



| 코인명 | 가격(원) | 전일대비 등락(원) | 코인명 | 가격(원) | 전일대비 등락(원) |
|--------|---------|-----------------|----------|---------|----------------|
| 비트코인캐시 | 479,600 | -21,400 (4.3%▼) | 모네로 | 103,500 | -7,900 (7.1%▼) |
| 리플 | 474 | -27 (5.4%▼) | 비트코인골드 | 29,480 | -1,680 (5.4%▼) |
| 라이트코인 | 141,000 | -11,100 (7.3%▼) | 이더리움 클래식 | 9,055 | -595 (6.2%▼) |
| 대시 | 185,700 | -8,400 (4.3%▼) | 퀀텀 | 5,600 | -435 (7.2%▼) |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남북미 화해무드에도...접경지 부동산 '잠잠'

토지매입 문의 거의 없어
지난해 많이 올라 관망세

하노이 회담 결렬後 땅값 둔화
올들어 파주 1.23% 상승 그쳐
"가시적 성과 나오면 오를 수도"



지난달 30일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 첫 판문점 회동'이 성사되면서 경기도 파주시와 연천군 등 접경지역은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에 한껏 들떠 있다. 하지만 현지 부동산 시장은 예상외로 조용한 모습이다.

2일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파주시의 땅값은 1.2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4.07%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경기도 연천군도 지난해 1~5월까지 2.63%가 올랐지만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는 1.20%만 상승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남북철도 연결 등의 기

대감에 땅값이 뛰었던 강원 고성군도 1~5월까지 1.55% 상승에 머물렀다.

지난해에는 남북 정상들의 판문점 선언 등이 이뤄지며 기대감과 함께 경기 파주시와 연천군, 강원 고성군 등 접경지 부동산 거래가 크게 늘었고 가격 역시 치솟았다. 일부에서는 기획부동산이 극성을 부리며 투자 피해 사례가 적잖게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수차례의 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자 부동산 시장도 빠르게 식었다. 특히 올 들어서는 2월 북미 하노

이 회담이 결렬되고 남북관계에도 제동이 걸리면서 이들 지역 부동산 거래도 사라졌고 가격 오름세 역시 크게 둔화됐다.

고성군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올 들어서는 사실상 소강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토지시장이 잠잠해졌다"며 "지난해 호가도 크게 오른 상황에서 시세가 멈춰 있고 거래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주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다음 회담이 성사돼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 다시 땅값과 아파

트값이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파주시 문산에 위치한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북미 회담 이후에도 토지나 아파트 매입 문의가 거의 없다"며 "땅값은 최근 몇 년 새 이미 많이 오른 데다 아파트의 경우 공급 과잉 우려로 매수세가 따라붙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관망세가 짙은 상황이지만 향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 실질적인 성과물이 나온다면 또 다시 지난해를 넘어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접경지역의 토지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남북 관계가 크게 개선되면 접경지역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수요가 늘겠지만 분위기만으로 투자를 결정하면 곤란하다"며 "향후 기반시설이 조성되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장기간 투자금이 묶이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제로에너지' 적용 고층 아파트 첫선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지난달 입주
국토부·현대건설...에너지 소비 50% ↓

인천 송도에서 국내 최초로 고층형 제로에너지 아파트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총 886가구)가 지난달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국토교통부가 현대건설과 함께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이 단지는 고단열·고기밀 등 패시브 공법과 에너지 최적 제어를 위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첨단 공법을 적용, 공동주택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 5등급(에너지자립률 23.37%)을 취득했다. 이를 통해 기존 공동주택 대비 약 50% 수준의 1차 에너지 소모량 달성으로 인천시 공동주택 평균 대비 전기에너지의 약 50%, 난방에너지의 약 40%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은 "공동주택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건축 현황을 고려할 때 이번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공동주택 준공은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부동산 규제 아랑곳 않는 단독주택 '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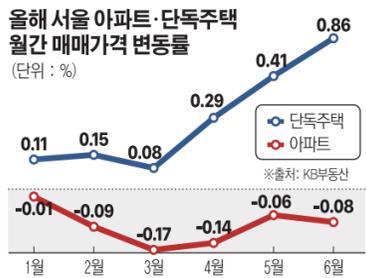
작년 9월後 매매가 3.32% 올라...아파트의 2배 수준
가격 변동폭 낮아 수요 꾸준...4년 5개월째 상승세

서울 아파트값이 출렁이는 상황에서도 단독주택 매매가격은 최근 몇 년간 탄탄한 상승장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규제로 매매가격 변동성이 큰 아파트 대신 단독주택을 선택하는 수요가 적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단독주택 매매가격은 2015년 2월부터 현재까지 4년 5개월째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특히 유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막은 9·

13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아파트는 매매가격이 빠졌지만 단독주택은 여전히 상승장을 연출했다. 서울 아파트 시세는 2014년 8월부터 시작된 상승장이 올해 1월 들어 하락(-0.01%)으로 돌아섰다. 이후 월마다 -0.1% 안팎의 변동률을 보이는 모습이다. 반면 단독주택은 이 기간에도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올해 6월 0.86%가 오르며 9·13 대책 영향을 받지 않은 지난해 9월(1.27%)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주택시장을 이끄는 상품은 아파트로 보이지만 규제 속에선 단독주택이 더 빛났다. 9·13 대책이 나온 2018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78%, 단독주택은 3.32% 상승했다. 이

기간 단독주택이 아파트보다 1.5%포인트 가량 더 오른 셈이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 부담은 커졌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상가주택 등 수익형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규제 속에서도 가격 변동폭이 낮은 점을 수요 증가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재건축 억제 등 규제 일변도로 나서면서 아파트의 가격 변동 가능성이 커졌다"며 "보통 땅값은 물가상승률 이상 오르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높은 단독주택의 경우 아파트보다 안정적인 가격 상승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아파트 대신 안정성이 큰 단독주택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신철 기자 camus16@

부영 진해두동 택지지구 준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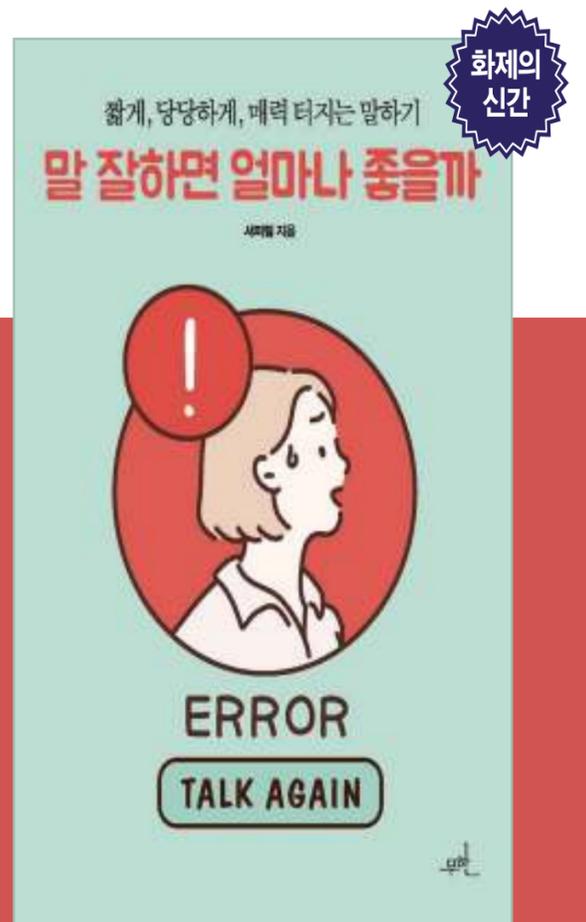
부영그룹이 시공사로 참여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 택지지구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가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부영그룹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두동 일원 사업현장에서 진해두동 택지지구 준공식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하승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국회의원, 시의원, 기관,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부영그룹 측에서는 이세중 회장직무대행과 최양환 사장이 참석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개발사업은 168만㎡ 부지에 주택건설용지, 상업용지, 산업시설용지가 들어서는 대형조성공사로 시행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2019년에는 '짧게, 당당하게, 매력 터지게' 말해보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해야 할 때, 평소 대화할 때, 상대를 설득을 해야 할 때
이 책의 말하기 기술을 떠올린다면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기회들을 발판삼아 '당당한 나, 매력적인 나'의 모습을 찾아보자!

- 상대의 '심리를 지배하는' 말하기
- 상대의 '마음을 훑치는' 말하기
- 상대를 '행동하게 만드는' 말하기



〈가상화폐거래소〉

법원 “업비트, 벤처인증 취소 정당”

‘블록체인 암호화 자산, 벤처 불포함’ 시행령 근거해 판결 “영업 제한 없지만 우대 혜택은 불가”... 두나무, 항소 검토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정부의 벤처인증 취소 처분에 불복해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벤처인증이 취소되면 세제·금융·특허 및 정책자금·신용보증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두나무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을 상대로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두나무는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가상화폐거래소 두나무(업비트), 스트리미(고팍스), 웨이브스트링(코인이즈), 리포유 4개 업체의 벤처인증을 취소했다. 같은 해 10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

행령 개정으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에 추가됐기 때문이다.

기간 만료 9개월을 앞두고 취소 통보를 받은 두나무는 곧바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중기부가 소관 부처이지만 벤처 인증 및 취소 여부는 벤처캐피탈협회에 위탁돼 있어서다.

두나무는 “벤처인증 취소 처분은 법령상 근거 없이 이루어졌고, 벤처기업 확인 및 취소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으며,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번 처분이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벤처기업 요건에 맞지 않더라도 바로 인증을 취소할 수 없고, 유효기간까지는 벤처기업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이후

에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물론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도 해당한다”며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게 된 이상 요건 또한 갖추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지나친 투자과열·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의 불법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는 상황에서 암호화폐 중개업소들을 벤처기업으로 지정해 다양한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런 처분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행령의 입법 목적에 부합해 적법성이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의 영위 자체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중용 기자 deep@



가장 앞둔 해수욕장 해수욕장 개장을 앞둔 강원 고성군 죽왕면 백도 해변에서 2일 백사장 청소와 평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고성지역 27개 해수욕장은 12일 개장한다. 연합뉴스

본인 응급진료 거부해도 처벌 받는다

현재 “자기결정권 한계 벗어나 치료 거부 환자 벌금형은 합헌”

자신에 대한 응급 진료를 거부하며 난동을 피운 응급환자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현재는 응급환자 본인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A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12월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의 치료를 거부해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확정받자 응급의료법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응급의료법 제12조는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A 씨는 해당 조항의 ‘누구든지’라는 표현은 응급환자 본인도 포함시켜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으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는 “응급환자 본인의 행위가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것으로 응급진료 방해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정당한 자기결정권이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이를 처벌의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그 밖의 방법이 규율하고 있는 대상은 폭행, 협박, 위력, 위계에 준하는 것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유·무형의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에 지장을 주거나 위협을 발생하게 할 만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장효진 기자 js62@

성수동 수제화 작업장 협동로봇 함께 일한다

서울디지털재단·한화정밀 MOU

서울디지털재단과 한화정밀기계는 3일 협동로봇을 활용한 성수동 수제화 거리 활성화에 대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협동로봇이란 인간과 로봇이 직접적인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로봇으로 작업자가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현업 공장·공방에게는 △작업장 내 협동로봇 구매·설치 △작업장 현대화(인테리어) 비용 지원 △작업장 안전인증을 위한 사전컨설팅 제공 등이 제공된다. 설경진 기자 skj78@

인권위 “장남의 장남만 ‘장손’ 인정은 차별”

“유공자 외손녀도 보훈 혜택 줘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장손의 자녀에 대한 취업 지원 시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만 보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한 A씨는 부친의 외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 B씨였다.

B씨는 아들 두 명과 딸 두 명을 뒀는데, 두 아들은 6·25 전쟁 때 북한으로 갔고 막내딸은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 한국에 남은 자녀는 딸 한 명이었으며, 후손 역시 그로부터 이어졌다.

진정한 A씨는 본인이 진외조부(陳外祖父)이자 독립운동가인 B씨의 유일한 한국인 자녀인 만큼 독립유공자에게 유공자

률에 따라 취업 지원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장손은 사전적 의미와 사회 관습에 근거해 ‘장남의 장남’으로 보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이라며 “장손이란 호주 승계인을 대체하는 개념”이라며 진정한 독립유공자 장손의 자녀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가 ‘호주제는 가족 내에서의 남성의 우월적 지위, 여성의 종속적 지위라는 전래적 여성상에 뿌리박은 차별’이라는 사유로 폐지한 것에 비했을 때 국가보훈처가 이런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해석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7월호 발매

시니어 공감 매거진
BRAVO Monthly Magazine
My Life
2019. 07 VOL. 05

다시 빛을 향성기 하며
“평생 일귀
놓은 꿈
나누며 살고 싶다”

김정희의 인생 이야기
“이 역동적 삶 속에서
살아온 인생 이야기”

여고 동창생 20년의
회담을 자유여행기

남새를 추억하고
향기에 취하고
scent

COVERSTORY 남새를 추억하고 향기에 취하고

PART1. 기억 속 향훈 - 까마득한 남새가 새삼 그립습니다
PART2. 남새에 관한 설문조사 - 당신의 남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ART3. 악취 발생시키는 질환과 해결법 - 물·일·밥, 악취의 근원?
PART4. 일 남새 고민 - 귀취 집으러다 만나는 소통 공간
PART5. 일상 속 악취 솔루션 - 상쾌한 여름을 위한 천연 탈취 DIY
PART6. 향기의 품격 - 현대사회의 향기가 고르다
PART7. 인생의 내음 - 향기를 부르는 이야기들

플레이팅 시니어 위협하는 심장병

인간의 생명활동이 정지되는 상황, 즉 사망을 판정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호흡과 심장박동의 유무에 달려 있다. 심장이 우리 생명과 가장 직결되는 장기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심장에 발생하는 질환을 흔히 심장병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종류가 다양해 하나의 병이라고 말하기 모호할 정도다. 심장병 중 중장년이 조심해야 할 대표적 질환을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순환기학과 장성원(張成元)·최 교수와 함께 알아보자.

귀촌

별생각 없었던 귀촌이
별나게 즐겁습니다

별생각과 공리를 더하고도 망설이게 되는 게 귀촌이나 귀농이다. 그러나 김석봉 씨는 별생각 없이 시골로 왔다. 무슨 생각 없이 영동한 오랑중의 현상이 그를 이끈 건 아닐 것이다. 그는 매우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거나, 자나 깨나 귀촌을 숙원으로 여긴 바가 없었으니 하필 추미진 산골로 따라가는 계기를 받았을 리 만무하다. 여하튼, 별 생각 없이 귀촌한 석봉 씨는 별 탈 없이 살아왔다. 별생각이 없었으니 별 풀림도 없었을 청량지다. 사실은 별 풀림이 벌어졌다. 별생각 없이 일어나며 살아오는 속도가 숲을 둘러다녔다.

신라비가 만난 사랑

심아 있는 한 인생은
인생이 사랑이다
시인
이규리

이억되고 싶지 않다
물처럼 살면 빛나거든
전방위 예술가
문순우

정열로
함박웃음 짓다
마술사 겸 영화인
조용서 씨

타박타박 신책 푸른 바다 벗삼아 걷는 여수 낭만길

하루 동안 여수를 일차에 여행하고 싶다면, 오토도를 중심으로 한 해장공원 일대를 둘러보길 권한다. 동백숲이 그윽한 오토도와 스릴 넘치는 해상케이블카, 항구 정취가 가득한 종포해방공원, 여수 바다를 즐길 수 있는 빅오쇼와 낭만포차 등을 두루 경험할 수 있다. 걷는 내내 여수의 비탈길 바다가 펼쳐지는 이 코스를 소개한다.

고고하게 인천·경기편

고고는 오래된, 고상한, 뛰어난 등의 의미로 쓰인다. 그 수식어에 걸맞은 맛깔, 이름하여 ‘고고하게’ 찾아간다. 지하철 인근으로만 산책해 찾기도 쉬우니 어서 고고(go-go)를 외치자!

시니어 밥상
올레이드 사찰음식
원기회복에 도움 주는
보양 레시피

상속과 증여 톨마보기
김성우 변호사
내 재산은 어디로
‘상년후견제도’

비트코인 가격 오르면 고민도 깊어진다

김우람의 가상화폐 스토리텔링

가상화폐(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지난해 말 356만3000원으로 연저점을 기록한 후 꾸준히 반등해 지난달 26일 1684만1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2일 오전 9시 30분 현재 1298만 원으로 다소 하락한 모습이지만, 저점 대비해 여전히 많이 오른 상태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면 투자자들은 좋아하겠지만, 고민이 깊어지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무슨 사정일까요.

◇자산 인정 여부에 촉각 =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을 텐데요. 낮은 가격에 거래될 때는 관심과 흥미가 떨어지다가도 서서히 회복하면서 관심이 생겼다는 투자자가 곳곳에서 보입니다.

이런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정부도 탐탁지 않은 상황이었죠. 2018년 1월 강력한 규제를 담은 행정지도안을 내놓은 이후로 줄곧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규제안이 효과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는데, 최근 비트코인이 다시 반등하고 있죠.

문제는 비트코인이 가격 상승과 함께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지속적으로 자산 인정 요구를 해 올 텐데요. 이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팻에프)는 가상화폐를 '가상자산'이란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고, 거래에도 엄격한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것에서 자산의 성질을 일부 인정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FATF 규제안을 따라야 하죠.

그런데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이에 대해 정부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한다면 투자 열기는 꺾일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수수료가 1만 원 훌쩍 =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또 고심하는 곳이 있는데요. 높은 전송 수수료를 내야 하는 비트코인 사용자들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전송 수수료는 0.001비트코인(BTC)인데요. 현재 가격이 1200만 원대로 계산하면 다른 지갑으로 전송하는 데 무려 1만



정부가 가상화폐 자산으로 인정 땀 투자 열기 꺾이지 못하게 커질 수도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대표 코인들 전송 수수료 높게 책정 사용자 부담

해외보다 5%대 이상 높은 거래가격 하락장에 낙폭 더 키울 수 있어 문제

2000원 이상이 수수료로 사용됩니다. 이더리움도 높은 수준인데요. 보통 국내 거래소가 0.01 이더(ETH)를 전송 수수료로 받고 있는데, 원화로 3500원 수준입니다.

가상화폐의 대표적인 두 코인이 이렇게 수수료가 높은 것은 큰 약점으로 지적받고 있어요.

금융 인프라가 최상급인 우리나라에선 이미 돈을 송금하면서 수수료를 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은행들은 이미 십수 년 전부터 송금(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송 수수료로 1만2000원과 3500원은 경쟁력이 한참 떨어지는 것이죠.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항시적으로 전송 요청이 계류되고 있

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송금하려면, 수수료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네트워크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가격과 전송량이 늘어난다면 수수료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소액 전송에는 쓸 수 없게 되고 사용성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상승장에 항상 생기는 프리미엄 = 우리나라에선 가상화폐 가격 상승에 항상 따라다니는 게 '프리미엄'입니다. 이를 '김치 프리미엄'이라고도 하죠.

지금도 우리나라 거래소 평균가가 해외보다 5%대 이상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 1600만 원 이상 상승할 땐 10%대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프리미엄이 생기면, 하락장에서 떨어지는 폭을 더 키울 수가 있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하락 중인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사라지면, 우리나라에서 낙폭이 더 크게 되는 셈이죠. 이럴 경우 국내 투자자가 심리적으론 더 큰 타격을 입고, 심지어 투매 물량으로 해외보다 더 싸게 거래되는 '역프리미엄' 상황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전 상승장에서 프리미엄이 나오고, 하락장에서 역프리미엄이 생겼는데요.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게 전문 트레이더들의 생각입니다. hura@

시장 이모저모

미국의 대표적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비트코인을 들어본 적이 있다는 결과를 내놨고, '비트코인(bitcoin)'의 구글 검색량이 '예수(Jesus)'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 절반 이상, 비트코인 들어봤다”

미국인 절반 이상인 58%가 가상화폐(암호화폐) 비트코인(BTC)을 들어본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지난해 12월에 18세 이상의 미국 인터넷 사용자 2000명을 대상으로 미국 내 가상화폐 인식 및 도입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58%가 비트코인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 결과는 설문자에게 가상화폐 리스트를 제공했을 때 나온 수치로, 리스트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비율이 37%로 떨어졌다.

비트코인, 구글 검색량 '예수' 넘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유력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기고를 통해 "검색어 분석 사이트 구글 트렌드에서 비트코인 키워드는 '예수(Jesus)'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구글 트렌드는 이용자들이 특정 키워드로 검색한 횟수를 지수화해 대중의 관심도를 보여주는 지수로 구글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한다.

포브스는 "비트코인의 구글 트렌드 지수가 2017~2018년 랠리 이후 다시 예수를 넘어선 것은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시점에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더리움 하루 전송량 100만 건 돌파

지난달 28일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등록된 하루 트랜잭션 수가 100만 건을 넘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더리움 블록 익스플로러 이더스캔 데이터를 인용, 이더리움 일간 트랜잭션 수가 작년 5월 이후 처음으로 100만 건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더스캔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100만4170건의 거래가 확정됐다. 올해 2월 최저 기록인 38만 건에서 증가한 수치다. 최고 기록은 지난해 1월 4일로 134만 9890건이다.

김우람 기자 hura@

랜섬웨어 정보센터 www.hauri.co.kr

당신의 소중한 파일을 노리는
랜섬웨어

알려지지 않은 최신 랜섬웨어

바이로봇
Anti-Ransomware

보안취약점을 통해 유입되는 랜섬웨어

바이로봇
APT Shield 2.0

이미 알려진 랜섬웨어 동작 시

바이로봇 7.0

하우리, 바이로봇으로 차단하세요!

수년간 축적된 소중한 데이터를 한 순간에 암호화 시켜버리는 랜섬웨어. 대한민국 대표백신, 바이로봇 솔루션으로 랜섬웨어를 차단하고 소중한 데이터를 지키세요.

(주) 하우리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38 (예일빌딩) 6층 | 대표전화 02-3676-1100

하나금융그룹



따져 볼수록 원큐
 제출서류 필요 없고, 직업 상관 없고
 중도상환 해약금도 없고

따질 필요 없이 원큐
 누구나 3분 한도조회 가능

이제 대출도 원큐로 통한다!
 쉽고 빠른 모바일 신용대출
하나원큐신용대출

한도조회
 바로가기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KEB 하나은행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품 설명서 또는 KEB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고객센터(1599-1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2020년 5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19-광고-2967호(2019.06.10) / CC브랜드190604-0023

박원순 시장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 공론화 착수

“독립역사 마주하고 기억하는 공간으로”

보훈처·문화재청 등과 업무협약
일반시민 포함 144인 포럼 구성
연말까지 기본 조성계획 마련
2024년 새로운 효창공원 완공



박원순(왼쪽 네 번째) 서울시장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 및 설명회에서 시민참여단과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해 조국 해방에 삶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이 잠들어 있는 역사적 공간인 효창공원의 위상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 및 효창독립 100년포럼 발대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정재숙 문화재청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4월 박원순 시장은 백범 김구 선생 등 7인의 독립운동가 묘소가 위치한 효창공원을 2024년 독립운동을 기리는 '효창독립 100년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서울시, 국가보훈처, 문화재청, 용산구가 공동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효창독립 100년 공원(가칭)'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144인의 거버넌스인 '효창독립 100년 포럼'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대시민 공론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6~12월 운영되는 '효창독립 100년포럼'은 독립운동가 묘역과 효창운동장을 비롯해 효창공원 일대 기본 계획 수립을 주도, 조성 방향을 결정하고 주요 내용을 논의한다. 포럼위원 43인과 시민참여단 101인으로 구성된다. 포럼위원은 유족, 보훈, 축구·체육계, 지역주민 등 주요인사 33인과 관련기관 당연직 10인이며 시민참여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됐다. 해커톤, 심포지엄, 엑스포, 토론회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나선다.

사업 주체인 서울시와 국가보훈처, 토지 소유주인 문화재청, 공원관리주체인 용산

구는 △독립운동장 묘역과 축구장이 공존 하되 하나의 공간으로 조성 △단절된 공원을 주변과 연계, 항상 쉽게 이용하는 열린 명소 △운동장 일부 철거 및 축구장 존치, 역사·장소 가치 존중 등을 방향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원순 시장은 “유족, 보훈·체육계, 지역 주민 등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효창독립 100년포럼'을 중심으로 미래 효창공원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릴 것”이라며 “일상에서 독립역사를 마주하고 기억하고 추모하는 독립운동 기념공원으로 착실하게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희 기자 jh6945@

또 36억 달러...버핏 기부총액 340억 달러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사진)이 자신이 이끄는 투자회사 버크셔해 서웨이 보유 주식 중 약 36억 달러(약 4조1870억 원)를 5개 자선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자신이 가진 거의 모든 재산을 자선사업에 기부하기로 한 계획의 일환이다.

WSJ에 따르면 버크셔는 1일 버핏이 보유한 클래스A 주식 1만1250주를 클래스B 주식 약 1690만 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클래스B 주식 약 1680만 주는 빌앤델



린다케이츠재단, 버핏의 자녀가 각각 운영하는 수잔툼슨 버핏재단, 셔우드재단, 하워드G.버핏 재단, 노보재단 등 5곳에 기부된다. 이들 재단은 빈곤 퇴치와 빈곤층의 의료 서비스 및 교육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버핏은 지난 2년간 이들 5개 단체에 약 66억 달러를 기부했으며, 이번 기부를 포함하면 기부 총액은 약 340억 달러에 이른다. 배수경 기자 sue6870@

김 카다시안, 속옷 브랜드 '기모노' 이름 결국 철회

“일본 문화 모욕” 비판에 물러서

미국 배우 겸 사업가 김 카다시안(사진)이 자신의 새 속옷 브랜드에 '기모노(Kimono)'라는 이름을 붙였다가 근후스런 상황에 처했다. 기모노는 원래 일본 전통 의상인데, 이를 속옷 브랜드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일본에서 거세게 일었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카다시안은 1일(현지시간) 이 브랜드 명칭을 철회하기로 했다.

카다시안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좋은 의도를 가지고 브랜드를 '기모노'라고 이름 붙였다”며 “피드백에 감사하고 있



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 브랜드와 제품은 포괄성과 다양성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심사숙고한 결과 새로운 이름으로 브랜드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카다시안이 '기모노'라는 이름의 새 속옷 브랜드를 론칭하기로 하자 소셜미디어에는 “기모노는 속옷이 아니다”, “일본 문화를 모욕하고 있다”, “상표 등록을 취소하라”는 등의 비난이 빗발쳤다.

배수경 기자 sue6870@

김기남 부회장·장석복 교수 '2019 최고과학기술인상'

김기남(왼쪽 사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과 장석복(오른쪽) 한국과학기술원(KAIST) 특훈교수가 국내 최고의 과학기술인으로 뽑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두 사람을 '2019년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 부회장은 시스템 반도체 제조공정·설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해 한국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도약시키고 다수의 세계 최초 메모리 기술을 개발해 한국이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국가로 우뚝 서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



었다. 장 교수는 기초과학인 '탄소-수소 결합 활성화 촉매반응개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업적을 내고, 그 연구결과를 사이언스·네이처 등에 발표해 세계적으로 연구 방향을 주도하는 등 우리나라 자연과학의 위상을 높인 점을 인정받았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 사재 1억 기탁 독립유공자 후손 대학생 10명에 장학금

자생의료재단은 1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독립유공자복지회관에서 독립유공자 유족회 주관 '신준식 장학금' 증정식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신준식 장학금'은 자생의료재단이 2월 개최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의료지원 선포식'에서 자생의료재단 신준식(사진 뒷줄 가운데) 명예이사장이 사재 1억 원을 독립유공자유족회에 기탁하면서 마련됐다.

자생의료재단 신준식 명예이사장이 독립유공자유족회에 기탁한 1억 원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학업과 생계 지원에 사용

될 예정이다. 특히 '신준식 장학금'은 독립유공자 후손 중 대학생 10명의 학업을 위한 장학금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유가족 3명의 특별생계지원금으로 쓰인다.

자생의료재단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및 후손 100명의 척추·관절 건강을 보살피는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자생한의원 은 재단 사회공헌기금 총 3억 원을 투입해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을 치료하고 있다.

신준식 명예이사장이 사재를 털어 장학



금을 마련한 데에는 독립운동가인 선친의 영향이 크다. 선친인 청과 산현표 선생은 독립운동을 하면서 의술(醫術)보다 인술(仁術)을 강조했다. 의사이자 한의사였던 신현표 선생은 1927년부터 중국 용정시에서 대진단 단원으로 독립운동을 하다 1931년경 경성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건강 악화로 김진차 아산병원 입원

“식사 잘 못해...위독이라기엔 일러”

신격호(사진) 명예회장이 지난달 말 서울 잠실에서 소공동으로 거주지를 옮긴 직후 건강이 급속히 악화해 서울아산병원에 건강검진차 입원했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범

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달 19일 잠실 롯데월드타워 레지던스에서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현 이그제큐티브타워)으로 거처를 옮긴 직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롯데 관계자는 “이사 후 지난주부터 불안 증세를 보이며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링거까지 맞는 상황”이면서 “현재 서울아산병원에 건강검진차 입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위독이라고 보긴 이르다”고 덧붙였다.

1922년생인 신 명예회장은 올해 97세로 백수(白壽·99세를 가리키는 말)를 앞두고 있다. 남주현 기자 jooh@

진에어, 베트남 대학생 한국 탐방

진에어가 베트남 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한국 탐방 행사를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베트남 대학생들은 5일간의 일정 동안 한식 문화관을 방문해 한식을 직접 요리해 보는 시간과 함께 IT서비스와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관 탐방, 케이팝(K-POP) 댄스 수업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베트남 대학생 팜투이엔은 “한국을 꼭 봐보고 싶었는데 이번 행



사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아직 베트남에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한국 여행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알려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기송 기자 kissong@

인사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본부장 △산업수학연구본부장 조도상 ◇부장 △산업수학전력연구본부장 윤강준 △의료수학연구본부장 안치영 ◇팀장 △부산의료수학추진팀장 하태영 △의료영상연구팀장 박형석 △산업수학문화확산팀장 정명순 △기획예산팀장 안성복

◆KB국민은행 ◇부점장급 승진 △글로벌지원부장 김익현 △삼성동문PB센터 개설준비위원장 권순희 △서충주신도시지점 개설준비위원장 이만기 ◇전보 △강남중앙지점장 박희관

◆우리은행 ◇본부장 이동 <영업본부장> △중부 윤정근 △미래기업 김백철 △

중견기업전략 이문석 <본부장> △인사부 이종근 △홍보실 김기린

◆한화생명 ◇지역단장 △제주지역단장 권세복 △강북지역단장 김관홍 △동수원지역단장 김창규 △무등지역단장 최종선 △서해지역단장 오성만 △울산지역단장 송주권

◆한양증권 ◇승진 △상무대우 영업부 양유수 ◇보직 임명 △디지털BIZ센터장 조한영 △리스크관리실장 신용휴 △법인영업부장 원태희 △디지털혁신부장 류상호 △신사업구조화금융부장 최경연 △리스크관리부장 오윤수

◆삼진제약 △컨슈머헬스케어본부상무 성재광

◆볼보건설기계코리아 △국내영업서비스부문 부사장 임재탁

부음

▲김두한(㈜동방특수지상사 회장·전광산김씨 대종회장) 씨 별세, 김성주(㈜오션켄코퍼레이션 대표)·정주(㈜한일특수지상사 대표)·용주(㈜케이앤비푸드 대표) 씨 부친상, 이찬(수원대 입학처장) 씨 장인상, 임미혜(중부대 간호학과장) 씨 시부상 = 2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4일 오전 6시, 02-3410-6915

▲심창복 씨 별세, 심재명(명필름 대표) 씨 부친상·이은(명필름 대표) 씨 장인상 = 1일, 신촌 연대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3일 오전 9시, 02-2227-7500

노은희 기자 selly215@

세계정위기능신경학회장 장진우 교수

연세대학교의과대학은 신경외과교실장진우 교수(의대 뇌연구소 소장)가 한국인 최초로 세계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WSSFN) 회장직에 올랐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4~27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 18차 학회에서 당선된 장 교수는 2년 임기로 회장직을 수행한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아코르 엠베서더 총괄셰프 윤화영 씨

아코르 엠베서더 코리아는 그랜드 엠베서더 서울 풀만,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강남,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 & 레지던스 등 3곳의 총괄 셰프에 윤화영 셰프를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신임 윤 총괄 셰프는 11년 동안 프랑스에서 세계적 셰프들과 경력을 쌓은 프랑스 요리 전문가다. 김소희 기자 ksh@



미국은 지금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美 최장기 호황 비밀과 트럼프發 불황 전조

‘미국제일(America First)주의’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다양한 정책들이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기존의 국제정치 및 경제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기존의 국제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자유무역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면서, 미국의 일방적인 힘과 영향력에 바탕한 양자간 협상 중심으로 통상질서를 송두리째 흔들어놓았다.

2009년 6월 시작된 미국의 경기회복 국면은 최근까지 이어져, 20세기 이래 미국의 최장기 호황 기록을 세웠다. 이렇게 10년을 넘은 미국 장기 호황의 비밀은 의외로 생뚱맞다. 그 첫 번째 비밀은 2007년 미국 발 세계금융위기 때 미국 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수준에 달할 만큼 경기침체 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만큼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이다. 두 번째 비밀은 경기가 회복되는 것인지를 느끼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우 미미하면서도 꾸준히 경기회복 국면을 보여왔다는 점이다.

한편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전문학적인 확장적 금융정책으로 시장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은 결국 투기적 자산소속의 기록적인 증가를 초래하였으며, 그 결과 미국 내 빈부격차 역시 전대미문의 수준으로 커지게 되었다. 또한 세계화의 결과로 미국 내 단순 제조업의 경쟁력이 급속히 퇴조하면서, 이들 업종에 종사하던 백인 노동자의 일자리와 소득수준도 급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배경에서, 분노하고 있던 백인 노동자들을 겨냥하여 보호무역과 반이민 정책으로 이들의 일자리를 되찾아주겠다고 약속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이

변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처럼 리얼리티쇼에서나 볼 수 있는 상황이 현실이 되어버린 미국에서, 지난 2년 반의 트럼프 재임 기간 중 ‘미국 제일(America First)주의’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다양한 정책들이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기존의 국제정치 및 경제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기존의 국제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자유무역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면서, 미국의 일방적인 힘과 영향력에 바탕한 양자간 협상 중심으로 통상질서를 송두리째 흔들어놓았다. 또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하여 국가안보를 이유로, 전대미문의 보호무역 정책과 미중 무역전쟁을 선포하면서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북핵 위기와 관련하여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한반도 안보 위기를 극단으로 몰고 가다가, 느닷없이 김정은을 가장 친한 친구로 부르면서 물러코스트 같은 행보를 보여왔다. 또한 지난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환경문제 해결이나 여성 지위 향상 등 국제적인 협력의 제를 모두 좌초시킨 이후, 한국 방문에서는 즉흥적으로 판문점에서의 회동을 연출

하여 리얼리티쇼의 극단을 보여주었다.

한편 이러한 트럼프의 물러코스트형 정책 행보가 중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와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여서, 트럼프발 세계 경제 위기를 유발할 것이라는 경고가 미국의 유력 경제학자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와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 등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발 불황의 조짐은 올해 1분기 3.1%에 달했던 경제성장률이 2분기 1.3%로 주저앉은 사실에서도 이미 나타났다.

이처럼 미국의 최장기 경기 호황이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보호주의 정책과 반환경 및 반이민 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일견 매우 비이성적이고 충동적인 듯한 트럼프의 정책 행보가, 적어도 트럼프의 단기적인 정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정책들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머지않아 미국의 소비재 물가 상승이 가시화되면서 서민 소비자의 구매력이 하락함과 동시에, 중간재 가격 상승으로 기업의 가격경쟁력에도 부

정적 영향이 현실화할 것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향한 강력한 보호 무역 및 응징 조치는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로 이어진다는 계산에 근거하여, 적어도 2020년 대통령 선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유럽연합(EU)과 일본, 멕시코, 베트남, 한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과도 무역갈등을 높이는 것이 정치적으로 남는 장사라는 계산에는 변함없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속가능한 평화체제와 지역 안정화 구도를 만드는 노력보다는, 대선에서 유권자의 관심을 불러 모으는 리얼리티쇼의 주요한 소재로 활용하려는 계산이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트럼프발 불황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트럼프의 일방주의 정책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자유무역 체제를 복구하는 노력이 절실하며, 이를 위한 중재자로서의 한국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북핵 문제의 해결 구도도 현재의 북미 양자간 구도와 함께, 관련 주변국들을 포함한 다자간 구도로 진행하는 것이 예측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정책발언대



서장우
국립수산과학원장

친환경 양식기술의 미래, 아쿠아포닉스

(Aquaponics)

멕시코 수도인 멕시코시티의 소치밀코(xochimilco)는 ‘물 위의 채소밭’으로 불리는 수상화원(水上花園)으로 유명하다. 오늘날 소치밀코는 멕시코시티 남부의 작은 행정구 중의 하나에 불과하지만 14~16세기에는 아즈텍 왕조의 수도가 위치했던 곳이다. 아즈텍인들은 이곳에 광대한 인공 운하와 인공 섬을 만들어 채소와 꽃을 함께 재배했는데, 이것이 바로 물고기와 식물을 함께 기르는 ‘아쿠아포닉스(Aquaponics)’의 시초인 ‘치남파(chinampa)’로 불리는 독특한 농사법이다.

는 유기물과 칼슘, 칼륨 등의 영양분이 많고 병충해가 적어 생산성이 매우 높았다고 한다. 소부족이었던 아즈텍이 거대 제국으로 번영할 수 있었던 비결로 알려진 치남파는 높은 생산성은 물론 생물의 다양성 유지와 지속가능성 등의 장점이 주목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오늘날 온난화, 이상기온 등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수산 분야에서는 친환경 양식업 육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암모니아 등 양식생물의 유해한 배설물을 수조 내에서 유익 미생물(바이오플라)로 분해해 유해한 배출수를 내보내지 않는 친환경 양식기술인 ‘바이오플라 양식기술’을 선보인 바 있다.

최근 개발 중인 ‘미래형 바이오플라 양식기술’은 바이오플라 양식기술과 아쿠아포닉스가 융합된 친환경 양식기술이다. 이 기술에서 주목할 점은 물고기의 배설물이 미생물에 의해 식물의 영양분이 되어 물고

기와 농작물을 동시에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오플라 사육으로 축적된 아질산염과 질산염이 식물의 영양분으로 재활용되어 자연 정화작용에 기여하는 셈이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식물이 지속해서 사육수를 정화함으로써 물고기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결과 30% 이상 더 빠른 속도로 물고기를 키울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미래형 바이오플라 양식기술에는 소비자가 걱정하는 유해 화학물질이 끼어들 틈이 없다. 이 시스템에서는 바이오플라에 의해 사육수가 식물의 비료 역할을 담당하므로 별도의 화학비료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미래형 바이오플라 양식기술은 최소한의 재배 면적과 물을 사용하여 무공해, 무농약, 무항생제 친환경 수·농산물을 동시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혁신적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 결과, 양식 물고기(1kg) 사육수로 기존의 수경재배에서 재배하는 상추 생산량보다 약 50% 더 많

은 상추(2kg)를 생산할 수 있음을 밝혀냈다. 아울러, 향어와 메기를 키우는 바이오플라 사육수로 재배한 새싹 인삼이 일반 양액에서 재배된 것과 비교할 때 사포닌이 더 많이 함유돼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미래형 바이오플라 양식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실용화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기술 개발 및 이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먹거리 안전문제와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신선한 식재료를 도심 속에서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도시농업’이 성행하고 있다. 최소한의 공간에서 물고기와 식물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미래형 바이오플라 양식기술’은 도시농업의 대표적 모델로, 도심 빌딩 속에서 신선한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혁신적 양식·재배 시스템이 될 것이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양식 기술인 미래형 바이오플라 양식 시스템이 양식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프란츠 카프카 명언
“시작하는 데 있어서 나쁜 시기란 없다.”
유대계 독일인 작가. 인간 운명의 부조리, 존재의 불안 등을 통찰하여, 현대 인간의 실존적 체험을 극한에 이르기까지 표현해낸 그는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변신(變身)’을 남긴 그는 평범한 직장인으로서의 생활과 글 쓰는 일을 양분하여 지냈는데, 유대계 독일인이라는 특이한 환경으로 인해 늘 고독과 외로움을 안고 살았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883~1924.

☆ 고사성어/마혁과시(馬革裹屍)
말가죽으로 시체를 싸는 말로, 군인은 전쟁터에서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뜻. 후한서(後漢書) 마원전(馬援傳)이 원전. 후한 광무제 때의 명장인 마원이 한 말에서 유래했다. “대장부는 마땅히 싸움터에서 죽어 말가죽으로 시체를 싸 가지고 돌아와 장사를 지낼 뿐이다. 어찌 침대 위에 누워 여자의 시중을 받으며 죽을 수 있겠는가[大丈夫 當以馬革裹屍安能臥兒女手].” 군인은 군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 시사상식 /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
전쟁이나 학살 등 역사적으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던 곳을 찾아 체험하는 여행을 뜻한다.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전해 듣는 것을 넘어 그 당시의 고통과 참상을 간접적으로 느껴 보고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여행이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동네 동리(洞里)가 변한 말.

☆ 유머 / 불 끄고 글씨 쓰기
아들이 “아빠, 아빠는 불 끄고 글씨 쓸 수 있어요?”라고 묻자 아빠가 “물론!”이라고 답했다.

아들이 “그럼, 불 끄고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라고 했다. 아빠가 “그게 뭐대?”라고 묻자 작은 소리로 한 말. “성적표요.”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삶연구소장

바짝 클로즈업된 소녀의 분홍 입술에 딸기맛 아이스크림 스푼이 들어간다. 이런 내용의 광고가 방영되자 “10세 아이를 성인처럼 입혀 놨네”, “온갖 성적 메타포, 클리셰를 다 갖다 썼군” 등 불쾌함을 표출하는 네티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문제가 된 이 브랜드 베스킨라빈스는 2003년만 해도 천사 모습의 ‘아이스크림 소녀’ 광고로 히트를 쳤다. 16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도리어 성상품화 코드로 점철된 아이스크림 소녀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것이다. 이는 명백한 퇴행이다. 업체는 사과문을 내고 “일반적인 어린이 모델 수준의 메이크업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기획 자체의 문제가 아닌, 통상적인 업계 분위기로 떠넘긴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아동 성상품화 코드로 흥역을 치른 업체는 이곳뿐만이 아니다. 휠라코리아는 2015년 사진작가 ‘로타’와 제작한 스트로베리 젤라또 운동화 화보로 소아 성도착증을 연상케 한다는 못매를 맞고 2년이나 흘러 공식 사과했다.

최근 글로벌 추세는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6월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는 14세 미만 아동의 단독 생방송을 금지하는 등 미성년자 보호정책을 발표했다. 유통기업 존 루이스, 드럭스토어 부츠 등 영국 15개 기업은 상품 광고에서 소년, 소녀란 표현을 쓰지 않기로 했다. 영국 광

고표준위원회(ASA)는 지난달 14일부터 성 고정관념을 고착화시키는 광고를 전면 규제했다. 파커 ASA 위원장은 “짧은 광고가 보여주는 강렬한 묘사로 인해 이를 정당으로 여기는 이들이 생긴다”며 파급효과를 우려했다.
소아 성도착증은 취향도 성애도 아닌 질환이다. 미디어에서 아동이 성적 대상으로 소비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들은 광고를 보고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져 있는데 정작 광고를 만드는 소비재 업체나 미디어들이 이보다 인식이 뒤쳐져 있어 문제다. 국내에서도 훨씬 더 엄격한 수준의 광고 기준을 만들어야 할 때가 됐다.

기자수첩



이꽃들 유통바이오부/flowerslee@

아동 성상품화 광고는 ‘퇴행’이다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 | | | | |
|--------------------|---------------------|--------------------|--------------------|---------------------------|
| 발행·인쇄인 김상우 | 편집인 김상철 | 논설실장 추창근 | 편집국장 김덕현 | 주소 |
| 논설실 (02)799-2669 | 편집부 (02)799-2621 | 뉴스팀부 (02)799-2664 | 사진팀 (02)799-2697 |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
| 정치경제부 (02)799-2663 | 사회경제부 (02)799-2612 | 국제경제부 (02)799-6741 | 금융부 (02)799-2665 | 대표전화 (02)799-2600 |
| 산업부 (02)799-2648 | 유통바이오부 (02)799-2641 | 중기IT부 (02)799-2646 | 자본시장부 (02)799-2647 | 팩스 (02)799-1003 |
| | | | |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
| | | | | 구독·배달 (02)799-2684 |
| | | | |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

역사적 남북미 회동, 아쉬움은 남는다

6월 30일에 있었던 남북미 세 정상회담은 전 세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한국전쟁 이후 극단적 적대 관계를 유지했던 세 나라 정상이 분단의 현장에 모여 악수하며 만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의미 부여가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DMZ를 방문하기 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몇 분 정도 만날 것'이라는 트윗을 남겼지만, 실제로는 50분이 넘는 단독 회담을 했다. 사실상의 3차 미북 정상회담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의 분계선을 넘을 때도 문 대통령은 말쑥하게 지켜보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미북 정상이 장시간 회담을 가졌을 때도 만남의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분단의 선(線)을 넘을 때, 함께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이런 획기적 사건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데 이용할 생각도 가졌을 법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다. 오로지 한반도 평화만을 생각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줬다. 한마디로 이런 세계적 이벤트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하면서 본인의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확실히 각인시켰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3차 회동은, 우리와 미국 그리고 북한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신울의 정치편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좋았을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자신의 진정성을 확실하게 보임으로써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유익했다. 김정은 또한 다시금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미국과 대화에 나설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소식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미북 정상 간의 만남은, 세계의 주목도만큼의 실질적 성과는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난 2차 미북정상회담이 결렬된 이유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영변 핵시설 폐기 플러스 알파를 주장했던 미국과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 제재를 풀려했던 북한의 입장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번 미국과 북한 간의 만남에서 이런 입장의 차이가 해소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김정은과의 만남 직후 가진 기자회견 형식의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를 필요는 없다. 서두르면 항상 실패를 하게 된다"며 "속도보다 올바른 협상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언젠가는 (제재의)해제가 될 수 있을 것이

라 생각한다. 협상을 진행하다 보면 해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결국 김정은과의 만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입장은 변한 것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한미정상 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제도 아직은 해제되지 않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급하게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이란에 대해서도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저는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 서두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회동한 직후 밝힌 입장과 똑같다. 결국 이번 트럼프-김정은 회동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주도로 2~3주 내 실무팀을 구성해 실무 협상을 하겠다"와 "우리는 각각 대표를 지정해 포괄적인 협상과 합의를 하겠다는 점에 대해 합의했다"고 한 정도의 성과만을 거뒀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미북 간 대화의 모멘텀을 살렸다는 측면에서 이번 미북 회동의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회동을 통해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톱 다운' 방식의 협상 전략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는 의미도 있다.

대화는 분명히 다시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 회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그대로라는 사실이다.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여정은 다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다.

사설

물가상승률 0%대, 디플레이 우려 정말 없나

올 들어 6개월째 소비자물가가 0%대 상승률에 머물렀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8(2015년 100 기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7% 오르는 데 그쳤다. 상반기 누계로는 0.6%의 상승률을 보였다.

품목별로 석유류 가격이 3.2% 하락하면서 전체 물가를 0.14%포인트 끌어내렸다. 전기·수도·가스가 1.3%, 서비스물가는 1.0% 올랐다. 집세와 공공서비스 물가는 각각 0.2% 떨어졌다. 농·축·수산물 1.8% 상승했지만, 채소류가 2.5%, 수산물 0.9% 내렸다. 공공서비스 물가 하락은 무상급식 확대와 무상교복 지급, 고교 무상교육 등 복지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전반적으로는 계속된 소비 부진이 물가상승률을 낮췄다.

이에 따라 연간 물가상승률이 1% 미만으로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0%대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간 0%대 물가상승을 보인 해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가 가장 어려웠던 1999년(0.8%), 국제유가가 폭락한 2015년(0.7%) 말고는 없다.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져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디플레이션은 지속적인 물가 하락과 경기 침체가 맞물린 현상이다. 가장 나쁜 경제 흐름이다. 장기간 물가가 떨어지면 소비가 부진해진다. 기업은 수요 감소로 재고 부담이 커지

고, 생산과 투자를 줄인다. 결국 성장 후퇴로 이어지면서 경기 악순환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이미 한국 경제는 생산·투자·소비 가 줄면서 성장률이 추락하고 있다. 곧 나올 정부의 성장 목표치도 당초의 2.6~2.7%에서 2.5% 수준으로 낮아질 게 확실하다. 글로벌 투자는 행들은 2% 성장을 달성도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은 7개월째 감소세다.

앞으로의 전망은 더 어둡다. 미·중 무역전쟁의 일단 휴전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일본까지 한국 경제의 최대 취약점을 겨냥해 반도체와 스마트폰, TV 등의 핵심소재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우리 주력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디플레이는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있다. 전반적인 가격 하락 현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경제연구원은 저물가 원인이 수요부진에 있다며, 물가상승률 0%대가 지속되는 지금 국면을 '준(準)디플레이션'으로 규정했다.

디플레이 논란은 차치하고, 가장 큰 문제는 경제여건이 갈수록 심각하고 암담한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마땅한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총체적 경제난 국에 정부가 어느 때보다 경각심을 갖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책의 모든 수단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동원해야 한다.

노경아의 작은 우리말터



편집부 교열팀장

아이스크림 먹을 땐 '날름날름'

키라고 쓰인 나무 상자에 보관되었으니 위생 상태는 말할 필요도 없다. 심지어 그것을 팔러 다닌 건 대부분 땀 많은 까까머리 남학생들이었다.

아이스크림을 돈 걱정 없이 먹었던 건 1980년대 후반쯤일 게다. 아이스크림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가격도 싸졌기 때문이다. '아맛나' '비비빅' '누기바' '바밤바' '쌍쌍바' '쭈쭈바' '조안나' '부라보콘' '짜만코' '월드콘' '구구콘'... 이 중 1970년 봄에 출시돼 유행으로 신 샀던 '부라보콘'은 우리나라 최초의 콘 아이스크림으로, 10대의 윤석화 씨가 부른 CM (Commercial Message)송은 국민가요 수준의 인기를 끌었다. 중년층 이상이라면 지금쯤 "12시에 만나요"로 시작하는 CM송을 흥얼거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1992년 12월 13일자 동아일보에는 재미있는 박스 기사가 실렸다. 아이스크림 '부라보콘'은 이름이 어려워 노인들 사이에선 '소플 아이스케키'로 불린다는 에피소드이다. 당시 교열기자들이 고심했던 흔적도 보인다.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제목만은 '브라보콘'으로 적혀 있다.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않는 '부라보콘'은 촌스럽지만 정겨운 느낌이 든다. 해태제과엔 북고 열풍이 불 때마다 '부라보콘'이 소환되

는 이점도 꽤나 클 것이다.

그런데 한여름 빠르게 녹는 아이스크림은 '날름날름' 먹어야 할까, '날름날름' 먹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날름날름 먹어야 한다. 날름만이 표준어이기 때문이다. 날름은 혀를 날래게 내밀었다가 들이는 모양을 표현하는 부사이다. 날름, 늘름과 같은 뜻으로 날름날름, 늘름늘름, 늘름늘름 형태로 많이 쓰인다. '무엇을 날래게 받아 가지는 모양', '불길이 밖으로 날래게 나왔다 들어가는 모양', '날래게 움직이는 모양' 등을 표현할 때 어울린다.

'날름'은 버리고 '날름'만을 인정한 근거는 '표준어 규정 제2장 제4절 제17항'이다. 우리말에서 받음이 비슷한 몇 형태가 아무런 뜻 차이 없이 함께 쓰일 때는 그중 널리 쓰이는 한 가지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솔직히 좀 꺼림칙하다. 날름보다 '날름'을 쓴다는 이가 주변에 더 많아 서이다. 복사뼈에 밀렸던 복사뼈가, 만날에 밀렸던 만날이, 목물에 밀렸던 등물 등이 언중의 입길에 자주 오르내린다는 점을 인정받아 복사 표준어가 된 것처럼 '날름'도 표준어 대열에 합류하길 바란다.

jsiysh@



고개와 고비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만남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가 큰 고개를 하나 넘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일부 언론들은 "큰 고비를 넘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하였다. '고개'와 '고비'는 맞바꿔 써도 괜찮은 동의어일까? 아니다. 고개는 '재'라고도 하는데 한자로 쓰이면 '영(嶺)'이다. 그래서 문경의 '새재'를 조령이라고도 한다. 새재는 '새나 낚나들 수 있을 정도로 험한 재(고개)'라는 비유를 담고 있는데, 이것을 한자 '새 조(鳥)'를 써서 표현한 것이 바로 조령(鳥嶺)인 것이다.

고개는 길이 통할 수 있는 산등성이를 말한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가파른 산봉우리는 고개라고 하지 않는다. 영어로는 '(mountain) pass'라고 하는데 그 어원은 '패서블(passable)' 즉 '통과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고 한다. 먼 산길일수록 이런 고개를 여러 차례 만나게 되고 그런 고개를 다 넘어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

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큰 고개를 하나 넘었다"는 말은 앞으로 넘어야 할 많은 고개 중에서 큰 고개 하나를 넘었다는 뜻이다.

고비는 일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나 대목', '막다른 절정', '위험한 시기'라는 뜻으로 쓰는 말이다. 고비의 어원이 '굽이(曲)'에 있다고 하는데 굽는 곳, 즉 전환점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고무관도 굽어지는 부분에서 구멍을 유지하지 못하고 완전히 꺾어버리면 더 이상 관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굽이에서 문제가 생기면 흐름이 막혀버리거나, 막힌 나머지 터지거나 범람하여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런 위험한 막다른 상태가 곧 고비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간, 남·북 간 대화의 길에서 만날 수 있는 많은 고개 중에서 큰 고개 하나를 또 넘었다고 한 것뿐인데 그것을 굳이 '고비'를 넘었다고 과장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이투데이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지갑을 깜빡해도 걱정없이
손만 대요

통장, 도장, 신분증 필요없이
손만 써요



이제부터 은행 갈 땐 간편하게
손만 댅겨요



[손으로 출금 서비스]
국내 금융사 최초, 손바닥 정맥 인증 창구 출금 서비스

손으로 출금 서비스로 당신의 일상이 편안해집니다

누리세요, KB가 만드는 새로운 금융생활

세상을 바꾸는 금융 |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b KB 금융그룹**